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홍우빈

2019년 2월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指導教授 李 世 衡

洪 羽 彬

이 論文을 體育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洪羽彬의 體育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양 명 환	
委 員	구 재 지	
委 員	한 남 익	
委 員	金 德 新	
委 員	李 世 衡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9年 2月

Comparison of Elite Sports Policy in South Korea and China

Yu-Bin, Hong

(Supervised by professor Sei-Hyoung,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ysical Education

2018.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yung-Hwan, Yang Prof. of Physical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 문제	5
4. 연구의 범위	6
5.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체육과 정치	8
1) 체육의 개념과 특징	8
2) 체육과 정치의 관계	9
2. 체육과 정책	13
1) 정책의 의미와 유형	13
2) 체육정책의 개념	16
3. 체육 정책 동향	18
1) 한국의 체육정책 동향	18
2) 중국의 체육정책 동향	19

Ⅲ. 연구 방법	21
1. 연구 범위 및 절차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절차	21
2. 문헌 분석	23
1) 문헌 분석 대상	23
2) 문헌 자료 분석	23
Ⅳ. 연구 결과	24
1. 한국의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	24
1) 박정희(朴正熙) 정부	24
2) 전두환(全斗煥) 정부	29
3) 노태우(盧泰愚) 정부	32
4) 김영삼(金泳三) 정부	34
5) 김대중(金大中) 정부	37
6) 노무현(盧武鉉) 정부	40
7)李明박(李明博) 정부	43
8) 박근혜(朴槿惠) 정부	46
9) 문재인(文在寅) 정부	48
10) 체육관련 법률, 조직, 재정	52
11) 요약 및 논의	64

2. 중국의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	68
1) 마오쩌둥(毛澤東) 정부	68
2) 덩샤오핑(鄧小平) 정부	72
3) 장쩌민(江澤民) 정부	77
4)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81
5) 시진핑(習近平) 정부	84
6) 체육관련 법률, 조직, 재정	86
7) 요약 및 논의	92
V. 종합 논의	96
VI. 결론 및 제언	102
1. 결론	102
2. 제언	103
참고문헌	104

〈표 차례〉

표 1.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26
표 2. 박정희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27
표 3. 박정희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27
표 4. 전두환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29
표 5. 전두환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30
표 6. 노태우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32
표 7. 노태우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33
표 8. 문민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35
표 9.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35
표 10. 국민의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37
표 11.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38
표 12. 참여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41
표 13. 참여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41
표 14. 이명박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44
표 15. 이명박 정부의 문화비전 5개년 계획	44
표 16. 박근혜 정부의 스포츠 비전 2018	46
표 17. 박근혜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47
표 18. 문재인 정부의 2030 스포츠 비전의 4대 추진전략	48
표 19. 문재인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49
표 20. 문재인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에 대한 추진전략	49
표 21. 최근 10년간 한국 정부의 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63
표 22. 마오쩌둥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68
표 23. 덩샤오핑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72
표 24. 장쩌민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77
표 25. 후진타오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81
표 26. 시진핑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84

표 27. 중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조직 및 담당 영역 88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절차 21

그림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련 조직도 59

그림 3. 대한체육회 조직도 61

그림 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직도 62

그림 5. 중국 국가체육총국 조직도 89

그림 6. 중국 체육과학연구소 조직도 90

ABSTRACT

Comparison of Elite Sports Policy in South Korea and China

Yu-Bin, H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ei-Hyo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elite sport policies by regime in Korea and China. The metho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bout policy contents, policy formation, policy change, and policy performance for elite sports in Korea and China. The basic data on the elite sport policy in Korea was used as a data, such as 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basic data on the elite sport policy in China is based on data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has maintained the consistency and persistence of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elite sports for the past 50 years. Second, China has consistency and persistence in building and maintaining an elite sports power along with Chinese economic reform policy. Third, the elite sport policy of Korea and China is contradictory to the policy direction and decision process according to the national system or state of the count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ystem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stablishing and enforcing policies, and are different in that the direction of policy an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can be se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goal of the state.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 and outcomes of elite sports policy, the elite sport policy by the regime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confirmed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that the elite sport policy for enhancing national prestige and the national brand value of the international sports arena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both countries.

We hope that both countries will accept the benefits of an advanced system of elite sport policies, and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sport policy through cooperation and exchange.

Key words: china, elite sports, policy, regime, south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창의성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활발해졌다. 국가 경쟁력은 교육·학문·예술·체육 등의 소프트파워가 진정한 국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브랜드 순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 체육의 가치는 국민 복지의 핵심으로써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과 의료비 절감, 질병예방 등 신체적, 정서적 안녕과 행복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다(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2014). 이와 같은 정책의 개념은 체육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체육 정책은 교육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공공단체가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대안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으로(김종철, 이종재, 1997),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국민의 윤리를 바탕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교육관련 집단 및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지침이라 정의할 수 있다(정일환, 2003).

또한 김종철(1989)은 정책을 정치 이념, 정치 행정면에서의 권한 집중과 분산도, 교육활동, 통제와 조성의 비중, 정당과 관료의 지배형태, 과거·미래지향적 성향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체육 정책은 학생, 성인, 노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에 관한 모든 정책을 포함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교육주체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실행된다. 정책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기능은 국가의 체육 정책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 정책은 표면 그대로의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유정애, 권민정, 2013). 박진경(2010)은 체육 정책의 상당부분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과 같이 다자(多子)의 공공-민간부분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즉, 체육 정책은 객관적 지표로만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교육정책적 요소와 국민 전체의 체육활동을 좌우하는 체육 정책적 요소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정책적 독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 정책은 정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의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체육 정책은 정책 내용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체육활동경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체육 정책은 정책집행과 평가적 측면에서 정치·행정적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제고도 포함해야 하는 독특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체육관련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체육 정책목표 수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정책이 가진 미래지향적인 특성(정정길 등, 2014)을 감안할 때 정책 분석 및 평가는 기존 체육 정책의 발전과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책 분석은 정부가 무엇을 하며, 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규명해내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들의 원인과결과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노화준, 2012). 즉 정책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평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재수립 시 참고가 될 유익한 자료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란 어떤 것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결정하는 일이며, 이런 측면에서 정책 평가란 이미 실시한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 2014).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책의 장점 및 유용성을 판단하는 일은 대부분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평가는 주로 정책이 목표로 했던 성과를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

동만 주로 이루어졌다. 정정길 등(2014)은 정책 평가를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과정상 환류의 기능을 하고,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 및 정책의 영향성, 효과성, 능률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노화준(2006)은 정책 평가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내용 및 집행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파악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정책평가의 기준점은 정책의 성과 파악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가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도 포함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정책의 책무성을 위한 성과평가 만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설정한 가치 준거가 올바른지, 준거에 따른 정책 수단이 유용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일련의 지적과정으로 정책평가를 보아야 한다(Vedung, 2017). 즉,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뿐만 아니라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준거와 정책수단 등 정부의 정책 자체를 개선·보완하려는 지적 판단 작업이 되어야 한다(이종재 외, 2014).

정책의 두 가지 목적은 정책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이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동시에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소영진, 2009). 정책의 여러 하위분야 중에서도 정책 분석 및 평가는 처방과 실천적 함의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정책평가를 ‘정책결과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정책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사실이나 처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것이라 하였다(남궁근, 2008).

체육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 및 정책집행자들이 무엇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책 설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정책문제 해결을 도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 집행자에게 체육 정책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더 나은’ 체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체육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체육 정책의 책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책무성 확보를 위한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체육 정책은 규범적

가치를 바탕으로 체육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고려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정책은 사회문제, 정책의제설정, 정책문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결과, 사회문제의 순환적 사이클(정정길 등, 2014)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정책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정책의 전반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책 분석 및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체육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체육관련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체육 정책 수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정책이 가진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정책 분석 및 평가는 기존 체육 정책의 발전과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에서 각 국에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체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체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체육 정책 중 엘리트 체육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여 국가 간의 엘리트 체육 정책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의 내용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과 특징, 성과 파악하여 엘리트 체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체육 정책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되는지, 그 성과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국가 간의 체육 정책의 비교 연구를 통해 축적된 비교 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최신 동향에 맞게 수집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합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정책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육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여 보다 가치 있는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올바른 정책 수단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체육 정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기존 정책의 발전의 제고하여 새로운 정책개발에서의 체계성 확보, 체육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향상 및 안정적 정책 시행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과 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가?
- 2)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왔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가?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분석되었다.

- 1) 본 연구는 체육 정책을 엘리트 체육 정책으로 한정하였다.
- 2) 본 연구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국가, 중앙정부 시행 정책으로 한정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정책 (Policy)

국가 정책을 국책(國策)이라 한다. 오늘날 정당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경영자 단체 및 개인의 정책은 그 내용과 성질이 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같은 것이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 체육 정책

체육 정책이란 체육에 관련된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1) 체육 정책의 목표

체육 정책의 목표는 체육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체육관련 담당 기관은 공식적으로 체육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이러한 기본 방침을 체육 정책의 목표로 한다.

(2) 체육 정책의 수단

체육 정책 수단은 체육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떠한 방법을 의미한다. 체육 정책의 대상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체육 정책 수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 정책의 실질적 내용은 체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3) 엘리트 체육

엘리트 체육이란 재능이 있는 소수 정예를 차출하여 초, 중, 고, 대 과정에서 전문적인 체육 지도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육을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체육과 정치

1) 체육의 개념과 특징

스포츠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신체단련이나 경쟁, 유희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 신체운동을 통 털어 이르고 있다. 국제스포츠 체육협의회는 “플레이의 성격을 갖고, 자기 또는 타인과의 경쟁, 혹은 자연의 장애와의 대결을 포함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각 사회나 개인의 관습적인 스포츠 활동이다. 둘째, 경기 및 투기로서 하는 운동이다. 셋째, 현대사회는 운동과 스포츠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처럼 스포츠가 운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동과 스포츠는 일반적인 동의로 쓰여 지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는 강인한 체력 단련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격의 완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반면 체육은 “인간의 다면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의도 밑에서 신체에 끼치는 교육적 영향이다. 그것은 학교, 클럽, 가정, 직장 등의 사회형태에 있어서 실현 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영어인 스포츠를 체육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체육의 개념에도 교육적인 의미가 더욱 담겨져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 스포츠와 체육을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와 체육 분야 중 개인운동 또는 각종 대회를 통한 국가 간의 경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스포츠와 체육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2) 체육과 정치의 관계

체육을 통해 일상의 긴장으로부터의 탈출과 건강의 유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사회적 적응, 취미·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잠재력 제고, 경쟁과 협동을 통한 민주적 인간의 형성 등을 이룬다고 하였다(Zeigler, 1977).

이러한 고전적인 체육의 의미에 따르면 체육은 매우 개인적이고 실용적이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단순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혹은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체육 현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Zeigler의 체육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체육과 정치와의 관련 속에서 그 순수한 가치와 의미를 훼손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엄연히 존재해 있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체육과 정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군사적 방어와 대외적 위신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의 체육 활동을 이용하였으며 로마 제국 하에서 시민들의 탈정치화를 이끌기 위해 체육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 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근대에 들어서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국가의 결속과 국력의 증진을 위해 유럽에서 발전한 근대 국가주의 체육도 어찌 보면 모두 체육의 정치적 속성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유럽은 19세기말 강대국의 제국주의 패권 다툼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쿠베르탱은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하여 부활시켰던 근대 올림픽이 얼마가지 못해 20세기 냉전 대결 구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여 졌던 것을 볼 때에도 양자 관계는 밀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이 본질적으로 정치 현상의 하나라는 성격이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설명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보면 체육과 정치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 활발해졌다(Hoberman, 1984).

Natan (1958)에 따르면 체육에 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함에 있어 체육이 완전히 정치조직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체육이 정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정치조직의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치수준과 스포츠의 관계에 있어 지역사회, 국가사회, 국제사회 등 세 가지의 정치수준이 각각의 스포츠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국가수준에서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Loy와 McPherson은 정치권력이 스포츠를 이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리적 경쟁, 둘째, 조직의 조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 셋째, 운동선수를 국력의 상징으로 이용하는 것 등(Loy & Mcpherson, 1978)인데 이들에 의하면 스포츠가 비정치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포츠가 어떻게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시 말해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며, 특히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기능이 한국과 중국의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종합해 보면 외교적 기능, 이데올로기 및 정치체제의 강화 기능, 사회운동 기능, 사회통합 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범식, 1988).

① 이데올로기(Ideologie) 및 정치체제의 강화 기능

스포츠는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 활동으로서 외부환경, 그 가운데서 스포츠가 행해지는 국가의 정치체제나 국가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즉, 한 국가의 정치체제가 어떠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그 나라의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전체주의 진영 등은 그 체제의 성격에 따라 그 나름대로 스포츠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상구, 김범식, 1984).

그러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커다란 체제 하에서 스포츠가 특정 국가의 정치 이념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측면이 결여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진영이라 할지라도 각국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다르고 이에 따라 체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외교적 기능

스포츠가 이념, 종족, 종교 등의 갈등으로 단절되어 있는 적대적 관계에서도 국가의 친선 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와 같이 스포츠가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스포츠 교류는 각국의 국력과 스포츠 역량에 따라 친화협력관계, 적대적 투쟁관계, 지배복종관계, 교환매매관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③ 사회운동 유도 기능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념, 성, 인종, 종교, 법 등과 관련된 갈등 양상은 광의의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운동을 일으킨다. 구체적인 실현 과정으로서 먼저, 평등주의운동(Egalitarian movement)은 정치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인권 파괴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으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여성해방운동, 아프리카 제국의 몬트리올올림픽 보이콧 사건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운동, 개발도상국이나 후진 국민의 지위향상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스포츠를 통한 노동운동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상존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경제적 대립 상황에서 파생되는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④ 사회(국민)통합 기능

스포츠의 사회통합 기능이란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사회 구성원을 집단속으로 흡수하고 그 집단성으로부터 개인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스포츠 활동은 사회화의 한 형태로서 개인을 집단 속으로, 집단을 문화의 형태 속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가 개인이든 팀이든 간에 자신이 속한 학교, 도시, 국가를 대표함으로써 참가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동일화되고 그가 속한 집단은 참가자에게 동일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단위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될 때 국민통합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스포츠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별히 중국의 정치상황에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는 이데올로기 및 정치체제의 선전 기능 및 사회통합기능과 외교적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체육과 정책

1) 정책의 의미와 유형

세계적으로 정책학이라는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본격화하였다. 정책학은 지식의 차원과 실천의 차원을 가장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학문분과로 한국에 있어서도 1970년대 후반 이후에 급속히 도입되어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여 왔다(임용태, 1992).

그 후 점차 국가정부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정책이란 것은 국민들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과학 내에서 정책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연구란 여러 학제 간의 끊임없는 정보교류와 연구교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의 유형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각 각의 학자들이 정책으로서 인식하는 대상이 상이한 권위의 수준을 근거로 판단되고, 또 현대 정치화 시대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활동과 민간부문의 활동이라는 구분이 극히 모호한데서 비롯되기도 한다(이종수, 1987).

우선 Lasswell (1951)은 정책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 이고,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재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이라고 정의하였다. Etzioni (1968)은 사회 전체를 위한 제가치의 권위적 분배,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 이라고 했으며, Dye (1981)는 정부가 활동하기 위해서나 또는 활동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 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Lindblom (1968)은 상호 타협을 거쳐 여러 사회집단이 도달한 결정으로서의 과정의 산물 로 보고 하였으며, 공공정책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들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이라고 하는 좀 더 정교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Anderson (1984)은 정책이란 한 행위자

나 여러 행위자들이 어떤 한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르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노선 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Lowi (1964)는 정책을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거나 소극적인 제재들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행태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정의해 놓은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정의하였다(노화준, 2007).

그 외 한국의 정책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으로 먼저 유훈(1990)은 정책이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과 관련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지침 또는 활동 목표라고 정의하였다(류지성, 2007). 정정길 등(2003)은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채경석(1997)은 정책이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당위성에 입각해 의도적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책대안을 탐색해 공식적인 정치 행정적 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행동지침이나 행동방침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정의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책이란 어떤 한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시스템, 구조, 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을 어떻게 바꾸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가 하는 정부의 계획된 활동들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 덧붙여서 정책이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정부개입의 행동들에 대한 상호 관련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의사결정을 동반하고 있다.

정책의 유형은 다른 분류와 마찬가지로 정책들을 그들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려는 노력이다. 좋은 정책의 유형화는 총망라 적이며,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정책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노화준(2007)에 의하면 정책은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정책 내용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Lowi (1964)는 공공정책의 유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의 특성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유형화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배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부분에 분배하는 내용을 가진 정책을 말한다.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혁신도시, 지하철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지원,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의 특정지역으로의 이전 등이 분배정책에 들어간다.

규제정책은 어떤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하여 다른 사회구성원들이나 집단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장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던지, 하천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 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것 등이 규제정책에 들어간다. 또한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정책으로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 대부분의 관계법이 여기에 속한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누진세로 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다른 어느정책 보다도 계층 간의 갈등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다.

구성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조직화하고 정부를 구조화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주로 정당이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거구의 조정과 정부의 새로운 기구, 조직의 시설과 재편, 공직자 보수의 산정, 군인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 체육 정책의 개념

위와 같은 일반 정책의 개념에 비추어 체육 정책을 정의하면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체육 측면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범제, 1999). 체육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의 체육에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체육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체육 정책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 의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육 정책을 체육에 대한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으로 정의하는 것, 둘째, 체육 정책을 체육의 목적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의사결정 혹은 행위로 정의하는 것, 셋째, 체육 정책을 체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일반 정책론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요구대응정책과 지지획득정책으로 나눈다. 그런데 국가 수준의 체육의 역할이 사회통합 혹은 사회통제 및 국가적 위광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체육 정책은 지지획득정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 체육정책의 목표

체육정책의 목표란 체육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권위 있는 체육 담당기관은 공식적으로 체육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 방침을 체육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육정책은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인 미래성과 체육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미래성이란 체육정책이 대상 집단인 체육집단에 투입되어 바람직한 상태를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며, 방향성은 정책화된 체육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거나 정책화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체육문제를 정책화하여 바람직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결국 체육정책의 목표는 최선의 체육정책 수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체육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며, 체육정책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상과 같이 체육정책의 목표는 체육정책 과정상의 결정이나 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구체화되고 각각의 체육정책 목표들 간에 상호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

(2) 체육정책의 수단

체육정책 수단은 체육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떠한 방법을 의미한다. 체육정책 대상자가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경우에 그 직접적인 원인은 체육정책 수단에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체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체육정책의 수단은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체육 관계자와 이해당사자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체육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이나 타협에서는 체육정책 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사실상 체육정책 목표에 대한 갈등은 어느 특정한 목표가 결정될 경우 그에 따라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는 체육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체육정책의 평가

평가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고 또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개념이나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정책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가는 정책평가 또는 공공정책평가, 사업평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이광희, 김길수, 2003). 정부차원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수많은 체육 정책을 발굴·시행해 온 반면,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주도의 공공정책 효과 검증을 통해 그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국가 책무성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또는 프로그램 수요를 정당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평가의 경우 정책 수혜자들의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정책평가의 접근 방법도 이들의 수요와 기대에 적합한 사용자 지향적 정책평가 방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신현석 등, 2008; 이용식, 오연풍, 2003).

3. 체육 정책 동향

1) 한국의 체육정책 동향

한국의 체육 정책은 과거 60~70년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정책에서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여가생활로서의 체육활동이 점차 강조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생활체육의 확산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단순히 체육참여만이 아닌 체육의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체육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스포츠비전 2018’이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이 발표되었다. ‘스포츠비전 2018’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스포츠산업의 확대라는 체육 정책의 구조적 틀과 기초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쇄신이라기 보다는 정책 승계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방향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의 승계라 할 수 있지만, 스포츠를 사회발전과 변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등 한층 발전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비전 2018’에서는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총 18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어 ‘스포츠비전 2018’과 연계하여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일명 스마일 100(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라는 스포츠 복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100세 시대 도래 등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이란 비전 아래, 스포츠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용·복합형 미래 스포츠 시장 창출, 스포츠 참여·관람촉진으로 잠재 수요 확대, 스포츠산업 선도 기업 육성, 스포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산업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2) 중국의 체육 정책 동향

중국의 체육 정책은 정부 내 국무원(國務院)산하의 국가체육운동위원회(國家體育運動委員會)를 중심으로 한 중국올림픽위원회(中國奧林匹克委員會), 중화전국체육총회(中華全國體育總會)등 3개의 기구에서 총괄하고 있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教育委員會)가 학교체육을 맡아 교육적인 측면의 역할을 하기도 하나 이들 세 기구가 실제상 체육 정책을 계획, 수행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조직의 권한은 대부분 국무원 산하의 기구인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 속한다. 이는 중국의 대외적인 체육 정책을 입안, 지휘 감독을 하는 최고의 기구로서 한국의 5~6공 시절의 체육부에 해당한다.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지난 1952년 11월 15일 설립되었는데 1998년 3월 24일 국가체육총국(國家體育總局)으로 개칭되었다. 이 기구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체육부문으로 출범 당시 제1주임은 국무원 부총리 흐룽(賀龍)이 겸직한 뒤 장제동(莊則棟), 왕맹(王孟), 리몽화(李夢華), 우소주(伍紹祖), 류펑(劉鵬)으로 이어졌다.

3백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 기구는 산하에 정책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포츠에 관련한 정보수집과 경기력 향상들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고 있고 전국의 각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국올림픽위원회는 NOC(국가올림픽위원회)기구로서 중국의 동·하계올림픽대회 참가문제를 비롯한 아시안게임 그리고 각 경기단체의 세계연맹 또는 세계협회와의 교류 등 국제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은 공산혁명전인 지난 1922년 IOC에 가입, 중국올림픽위원회(COC)가 결성되었으나 1954년 IOC

가 중국과 대만이라는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2년 뒤인 1956년 탈퇴하였다. 그 후 중국은 1979년 11월 26일 IOC에 재가입 하였다.

중화 전국체육총회는 지난 1952년 6월 설치된 기구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스포츠단체로서 국가스포츠행정기구가 창설되기 전인 1952년까지 중국 사회주의 청년단과 함께 전국의 스포츠 활동을 관장하는 조직이었다. 이는 한국의 대한체육회에 해당되며 각 경기단체를 이끌며 체육활동의 전개 및 국내 대회와 해외파견 선수단을 조직한다. 이 기구는 30여개의 종목별 분회를 두고 있는데 지난 1979년부터 4년마다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관장하고 있다. 1952년 출범당시의 명예주석은 주드(朱德), 주석은 국가체육운동위원회 위원장 마회시(馬懷席)가 맡았다.

중화 전국체육총회와 중국올림픽위원회는 오랫동안 동일한 역할을 해온 기관으로서 국가체육운동위원회와 함께 삼위일체의 조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행정주도형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중화 전국체육총회와 중국올림픽위원회의 두 조직은 허구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체제로는 사회변혁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시각에 의해 개혁개방 이후에는 스포츠 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이 행해졌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및 절차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정권별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정책 수립 내용, 정책 형성, 변화과정, 성과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혹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대한체육회)와 중국의 체육 정책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는 국가체육총국(혹은 국가체육과학연구소)이 시행한 정책으로만 한정하였다.

‘정책’은 각 시·도별, 정부 산하기관에서 파생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나, 정책을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정정길 등, 2014)이라 정의하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 정책이 수립되는 최상의 기관의 자료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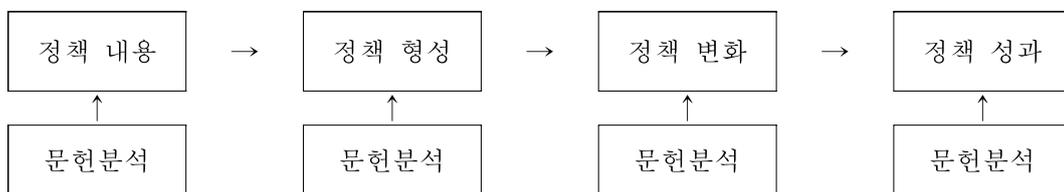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 내용을 분석’ 하였다. 각종 문헌 자료를 토대로 엘리트 체육 정책 내용과 체육 정책의 목표가 어떠한 규범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그 간 시행된 엘리트 체육 정책과 정책의 방향성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여러 이해집단간의 의견 수렴은 합리적인지,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체계적인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 변화과정을 분석’ 하였다. 체육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체육변화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하였다. 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파악하였다.

위와 같은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엘리트 체육 정책의 전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한 정책학습의 결과를 향후 정책 형성 과정에 보다 올바른 체육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문헌 분석

1) 문헌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엘리트 체육 정책 내용, 형성과정, 성과, 변화 등과 관련된 각종 문헌자료를 분석의 기초하였다. 문헌 자료는 연구자의 의도(purposive sampling)에 기초하여 1차 사료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체육총국 등의 공식문서와 연구 보고서, 정책관련 통계자료, 정책과정을 고찰 할 수 있는 정부 자료(법령)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직접 1차 사료를 접근하지 못한 경우는 웹사이트(인터넷)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정부 관계자에게 요청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지원 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2차적 사료로는 체육 정책과 관련된 정기간행물, 학위 및 학회지 논문,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 등을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2) 문헌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엘리트 체육 정책의 수립내용, 형성과정, 변화과정,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문헌자료는 정책의 목표, 주요 추진내용 등을 범주화하여 해당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정권별로 이루어진 엘리트 체육 정책 전반을 분석하였다. 문헌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 발표 내용, 중장기 계획의 명칭, 배경, 기간, 추진조직, 세부내용을 분석의 단위로 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별로 분류한 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한국의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

1) 박정희(朴正熙) 정부 (1963~1979년)

(1) 정책기조

박정희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비능률적인 정치를 혐오하였고, 위난의 조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자신을 이해하여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의 담론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체육 정책이며, 정권 초기부터 체육의 정치적 효과를 바탕으로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標語) 아래 강력한 체육 정책을 주도하였다. 특히 엘리트 체육의 재현기능이 국민의 동질 의식과 우월감을 고취하여 “국민통합과 정권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안정 속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 체육이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 아닐 수 없었다.

“국민총화의 공고화”와 “국력배양의 가속화”에 직결되어 있으며, “자주 국방과 자립경제를 우리 힘으로 이룩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중흥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를 달성하자”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제3공화헌정체제(제3공화국, 第三共和國) 체육 정책과의 관련성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초기단계부터 마련되었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다.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이른바 5·16 군사정변(쿠데타) 성공에 따른 정권 장악 직후부터 체육 정책의 두드러진 도약이 이루어졌다. 제3공화국의 국가 정책에서 체육(스포츠)분야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경제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인 체육 정책을 시행하였다(손수범, 2003).

1961년 8월 12일 법률 「제681호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입학시험에 체능 검사를 시행·배점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체육을 삽입하여 체육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해 10월 12일 정부기구의 개편은 이전까지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던 체육행정을 체육국으로 승격, 독립시켜 체육국 내에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를 두도록 하고 이를 강화시켰다(김형익, 2008; 문화체육관광부, 2002).

1962년 9월 17일에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체위향상(體位向上)과 국민체육진흥이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권옥동, 2012). 이러한 배경 속에 정책의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표 1>,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체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체육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법제처, 2018a).

특히, 제3공화국이 각종 제도와 조직을 구성하여<표 2>, 국민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설정, 지방체육의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선수 보호 및 육성, 체육용기구의 생산 장려 및 면세조치,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2; 임식, 허진석, 2009).

1963년 장충체육관을 개관하였으며, 1966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체육 정책일원화를 추진하여 대한체육회, 한국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로 분리되어 있었던 체육관련 단체를 대한체육회로 통합시켰다. 또한 그해 6월 태릉선수촌을 건립하였다. 산재되어 있던 체육관련 단체를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1968년 3월 1일 대한체육회로 흡수 통합되었고, 대중스포츠의 보급을 관장하던 대한체육회는 이때부터 엘리트체육 육성 단체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아마추어 경기단체의 총괄 지도, 우수선수 훈련 및 양성, 코치 및 심판원의 육성, 각종 국내 경기대회의 개최, 국제경기의 개최 및 참가, 각종 국제회의 대표파견, 선수 훈련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다(송형성, 1997). 1970년 3월 3일 국

표 1.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책정)	① 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기본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심의회)	① 국민체육의 기본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체육심의회를 둔다. ② 전항의 체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 (협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방체육진흥)	지방자치단체는 각체육단체가 시행하는 체육행사를 적극 원조한다.
제9조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직장은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 관리한다.
제10조 (지도자 양성)	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립종합경기장설치)	국가는 국제기준에 맞는 국립종합경기장을 설치 운영한다.
제13조 (기존시설의 이용)	각급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체육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제14조 (선수의 보호)	국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46호, 1962. 09. 17.> 시행

법제처(2018a)

표 2. 박정희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1963년 12월 14일	체육국 → 문예체육국(체육과)
1968년 07월 24일	문예체육국(체육과) → 사회교육국
1970년 08월 31일	사회교육국 → 체육국(국민체육과, 학교체육과)
1973년 03월 09일	체육국(국민체육과, 학교체육과, 학교급식과)
1979년 03월 19일	체육국(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

문화체육관광부 (2002)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 체육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 학교체육, 체육시설, 체육기금, 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체육 정책에 반영하였다(이학래, 1986, 임식, 허진석, 2009).

제3공화국은 제18회 동경올림픽, 19회 멕시코올림픽, 제4, 5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의 국제대회 대비훈련 및 참가에 많은 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엘리트선수 양성을 위한 체육학교의 설립을 시행하였다. 또한 1969년부터 대학에 체육관련 학과가 대량으로 신설되었고, 1976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체육 전문학교 신설 지시에 따라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체육 정책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엘리트선수가 양성되었고, 1975년부터 선수강화훈련 4개년 기본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이옥훈, 주동진, 김동규, 2003).

표 3. 박정희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 진 내 용
엘리트 체육 강화 (선수 양성 및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 체육시설 확대 및 확충 - 태릉선수촌 및 한국체육대학교 설립 - 선수강화훈련 4개년 기본 계획 수립
체육행정체제 강화	-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체육행정의 독립 (체육국 신설) (국민체육, 학교체육 강화) - 대한체육회 통합(체육회, 올림픽위원회, 학교체육회 등)
국제스포츠 입지 강화	- 대통령배 축구대회 개최 - 세계 및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출전

문화체육관광부 (2002)

1971년 대통령배 축구대회(Park's Cup International Football Tournament)를 신설하였고, 1972년 태권도 상설 체육관인 국기원 건립, 1973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1974년에는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

다. 또한 1973년부터 체육특기자에 대해 보충역에 편입시킬 수 있는 「병역의무의 특별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4년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 입상 가능자의 병역면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1972년 경기인의 연금을 위한 재단 설립을 시행하여 1974년부터 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메달리스트에 대한 종신연금 계획을 확장하였다. 이에 박정희는 체육인들에게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서 개인의 명예보다 국위를 널리 만방에 선양하고 국가의 명예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조국근대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해 체육인이 강건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민체육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법제처, 2018a; 이옥훈, 주동진, 김동규, 2003).

제3공화국의 체육 정책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책 수단화를 응용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국가발전(國家發展)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해서는 스포츠 정신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앞세우고, 나라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줄 아는 민주시민이 될 것을 강조함으로써 체육 정책의 국가주의 성향을 표출하였다(이학래, 1986; 임식, 허진석, 2009).

2) 전두환(全斗煥) 정부 (1980~1988년)

(1) 정책기조

전두환은 정부 수립 이후 정권획득의 정당성을 보장받으려는 시도에서 「선진 조국 창조」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루어진 체육 정책을 미디어를 이용한 체육의 정치화에 목적성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한국은 전문 스포츠 신문을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해 체육(스포츠)을 국민들 가슴 속에 뿌리깊이 심어 놓음으로써 정치 지배집단의 정치적 야욕과 정권유지를 획책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를 두고 언론 통제합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국민 대중을 우민화(愚民化) 시켰으며, 국민대중의 자발적, 창조적 참여를 억누른 국가 폭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안정보장의 강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 사회개발 확충, 정 신문화의 계발, 민방위 체제 보완 발전과 올림픽 서울개최에 따른 국민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확충, 우수선수 양성, 국제 교류 확대 등의 모든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표 4. 전두환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진 내용
엘리트 체육 강화 (선수 양성 및 지원 등)	- 엘리트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 체육과학연구소 설치(태릉선수촌) - 프로스포츠 도입(야구, 축구, 씨름 등)
체육행정체제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체육국을 국제체육국으로 개편 - 체육부 신설(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 준비)
국제스포츠 입지 강화	-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 유치

문화체육관광부 (2002)

제5공화헌정체제(제5공화국, 第五共和國)는 정권획득의 정당성을 보장받으려는 시도에서 「선진조국 창조」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서울에 유치하여 스포츠 입국(立國)을 설립하려 하였다.

문교부의 체육국이 1981년 11월 2일 직제 개편 의해 국제체육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982년 3월 20일에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경기의 조직적인 준비와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육부가 신설되어 체육·스포츠의 행정조직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표 5>.

표 5. 전두환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1982년 03월 20일	체육국 → 체육부 신설(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문화체육관광부 (2002)

정부가 체육부를 발족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대회의 조직적인 준비이며, 둘째가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육성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강력하게 엘리트 체육을 지원 육성하였는데, 이는 1988년도 올림픽대회 서울유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였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체육부를 발족시켰다. 그 외에도 과학적인 국가대표 선수의 관리를 위해 태릉에 스포츠과학연구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핵심은 국가 체육 정책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명량한 생활영위」에서 「국위선양」으로 변경하는데 있었다. 국위선양은 제3공화국에서도 국가 체육 정책의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1980년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위선양이 국가 체육 정책의 최종목적이라는 것을 표명하게 되었다(법제처, 2018b).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3.1.1.] [법률 제3612호, 1982.12.3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2018b).

체육관련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을 통한 정치화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제24회 서울올림픽은 한국(韓國)의 체육 정책의 미래를 학술적으로 논의하도록 유도하였다. 제5공화국은 정경유착(政經癒着)을 통한 정권 정책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와 올림픽을 정권의 정통성에 결부시켜 통치의 준거 틀로 삼았던 것이다. 스포츠를 정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편입시킨 제5공화국은 다른 어떤 공화국보다 구조적으로 스포츠의 정치화를 뒷받침하였다(김태형, 박인철, 2004).

제5공화국의 엘리트 체육의 전개과정은 정책입안 및 수행자의 정치철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전두환 정부의 체육 정책은 지배 권력의 정당화를 위하여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와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비교적 학교체육에 근거를 둔 체육 진흥정책을 펼친 반면,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 대비에 심혈을 기울인 차이점이 있다(김태형, 박인철, 2004; 이옥훈, 주동진, 김동규, 2003).

제5공화국의 체육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정책과 전문선수의 집중적인 배양, 즉 엘리트 체육 정책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은 강력하게 엘리트 체육을 지원, 육성함에 있어 88서울올림픽의 서울 유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 한국의 엘리트 체육 분야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의 프로스포츠 도입은 국민들의 시야를 사로잡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권옥동, 2012; 문화체육관광부, 2002; 신현규, 2009).

3) 노태우(盧泰愚) 정부 (1988~1993년)

(1) 정책기조

제6공화헌정체제(제6공화국, 第六共和國)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을 발판삼아 엘리트 체육 육성을 모체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호돌이 계획). 또한 1991년 2월 6일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출범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족자존의 새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 국제협력의 진로를 넓게 하여 북방 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에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가득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전진해 나아갑시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88 서울올림픽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의지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노태우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02).

표 6. 노태우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진 내용
생활체육진흥	- 국가 체육행정 조직 및 기구 개편
엘리트 체육의 지속성	-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 국내 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남북교류	-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출전 (남북 단일팀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2002)

표 7. 노태우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로 개칭
1992년 01월 01일	한국마사회 운영의 지도·감독업무 인수

문화체육관광부 (2002)

그러나 엘리트 체육 정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유지 또는 보완하였으며, 남북교류 정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1988년에는 7·7선언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남북한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다(김용현, 2000; 김재우, 2014).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두 개의 주권국가의 연합을 과도기 단계로 인정한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북한은 민간교류를 원하는 당국자간의 교류를 회피해 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가 선결과제를 깨닫고 남한의 교류제의를 수락했다. 그리하여 1990년 9월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리는 동안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고, 남북의 축구팀이 통일축구대회를 서울과 평양 두 곳에서 가졌으며, 1991년 4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5월에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권육동, 2012; 김용현, 2000; 김재우, 2014).

4) 김영삼(金泳三) 정부 (1993 ~ 1998년)

(1) 정책기조

문민정부(文民政府)는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一國政指標)로 삼아 한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비상(飛上)시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가 발전전략으로 세계화를 내세우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분야에서 선진화와 일류화를 추진하였고, 과거 힘들게 했던 낡은 국민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문민정부의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각종 법률의 규제 완화 등을 설정하여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유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문화·체육·청소년분야 발전의 정책 방향 및 실천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고 신 경제 건설과 함께 국가발전의 두 수레바퀴 중 하나인 문화 체육 창달을 통해 질적으로 성숙한 신 한국건설의 밑바탕이 되게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새롭게 발족하였다<표 8>. 향후 5년 동안에 추진해야 할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3~1997)을 수립하였다<표 9>.

문민정부(文民政府)는 체육 정책을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적 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엘리트 체육을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범국민적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의 체육 정책은 민간체육단체에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양적으로 성장해온 체육 정책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

표 8. 문민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1993년 03년 06일	체육부 →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국,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1994년 12월 23일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2002)

표 9.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엘리트 체육 정책 분야)

정 책 과 제	추 진 내 용
엘리트 체육의 지속성	-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 국내 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 자율성 제고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 세계 체육계에서의 한국 입지 강화 -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체육과학의 진흥	-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 - 체육과학의 실용화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 체육행정체제의 정비 및 보강 -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2002)

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김형익, 2008).

문민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엘리트 체육 정책은 프로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프로단체 확대, 연구지역별 재정지원 및 선수 수급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종목(농구, 배구 중)의 프로화를 추진, 검토하였다. 또한 다양화되는 국제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엘리트 체육을 지속 육성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토록 함으로써 국민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기여 하도록 하였다(김한나, 2009).

엘리트 운동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해 학교운동부를 육성기금 조성지원과 특별육성종목 학교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체육 고교선수에 대한 체육특기자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과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의 강화훈련(훈련인원 확대, 해외 전지훈련,

해외선수 초청 합동 훈련 실시 등), 동계종목 육성 강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전국체육대회 운영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개선, 경기지도자의 양성,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대한 정책도 수립되었다(김한나, 2009, 행정안전부, 2018).

국제 체육협력 증진에 대한 정책도 제시되었다. 문민정부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체육교류는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과거 북방외교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체육교류의 방향을 탈피하여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문민정부는 세계 체육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외교 전문요원 양성(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등), 국제체육기구의 임원 진출 확대, 국가별 체육협력 강화(기본 우방국과의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등), 태권도의 세계 보급 및 확대, 주요국제 경기대회 유치, 체육과학 연구기반의 강화,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등에 대한 정책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2; 박혜란, 2005).

5) 김대중(金大中) 정부 (1998 ~ 2003년)

(1) 정책기조

국민(國民)의 정부(政府)는 1998년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하였다. IMF라는 최악의 국가 경제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선진국들의 21세기에 대한 개혁 열풍과 세계화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만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는 국정(國政)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 및 완성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였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 하는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극복과 제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국민의 정부 체육 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에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 행정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작은 정부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정부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 체육 조직의 축소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김한나,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04, 하태수, 2009).

표 10. 국민의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1998년 02월 28일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1999년 05월 24일	1국 4과 56명 ⇒ 1국 3과 40명
2001년 01월 29일	한국마사회 업무 농림부 이관
2002년 03월 29일	생활체육과 신설 1국 4과 45명

문화체육관광부 (2002)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 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체육지도자 양성,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 체육시설 확충, 경기단체 재정자립 기금지원 및 법인화, 체육용·기구 품질향상 지원,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는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표 11>.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국민의 체력과 비만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기회부여, 여가활동 기회확대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종합적·체계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였다. 또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두 축이 상호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인식 하에 경기장 시설확보, 숙박·방송·보도시설 확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김하나, 2009; 서재하, 2004).

표 11.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엘리트 체육 정책 분야)

영역별 목표	추진 내용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 민간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세계상위권 경기력 유지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의 전문성 보강 - 경기단체 자율성 제고 - 경기운영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 -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발전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 - 체육외교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 내 역할 강화 - 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 - 국가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
2002 FIFA 한·일 월드컵 축구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 경기운영, 개최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 범국민적 대회참여 분위기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대회 이후 경기장 활용에 대한 정책과 체육시설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도 함께 시행하였으며, 시드니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림픽 참가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의 남북공동입장을 계기로 종목간의 단일팀을 구성하여 엘리트 체육을 통해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남북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남북 스포츠 교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엘리트 체육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거듭하였다(김홍태, 2003; 김홍태, 최경호, 2013; 서재하, 2004; 하용웅, 2005).

6) 노무현(盧武鉉) 정부 (2003 ~ 2008년)

(1) 정책기조

참여정부(參與政府)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혁과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정부 역할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민사회 등 사회를 구성하는 제반 영역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폭넓은 민간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체질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희망과 자신감을 드높이기 위하여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선수는 선수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열중하고, 국민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참여정부의 체육 정책의 목표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표 12, 13>. 첫째, 생활체육 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로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둘째,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競技力) 유지(維持)를 통한 국위선양(國威宣揚),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넷째, 국제 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성

별(性別), 연령(年齡), 계층(階層), 지역(地域)의 차별(差別) 없이(無)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을 체계화 및 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체육의 과학적, 정보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국제 체육협력 강화 및 스포츠 이벤트의 적극 유치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김중희, 2004; 김홍태, 김동선, 2010; 서재하, 박창범, 2011).

표 12. 참여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2004년 11월 07일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체육진흥과 폐지
2005년 12월 15일	장애인체육과 신설 1국 5과 52명
2006년 07월 25일	'과' 명칭이 '팀' 제로 변경 1국 5팀

문화체육관광부 (2009)

표 13. 참여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엘리트 체육 정책 분야)

영역별 목표	추진내용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계 확립 - 엘리트 체육시설의 다기능화·현대화 -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엘리트 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기반 조성 -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 스포츠 반도핑 활동의 활성화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 -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정책 추진체제의 체계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2009)

참여정부는 엘리트 체육이 세계 상위권의 경기력과 성적을 유지하면서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체육의 기능이 불균형하게 성장해 왔다는 비판적 시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기존 꿈나무 선수 선발과 훈련 및 관리, 후보 선수의 발굴 및 육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선수 발굴과 훈련에 과학을 접목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종목별로 우수한 외국인 코치를 초청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선수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의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장비와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강화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스포츠외교 정책은 전문요원 양성과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스포츠외교 역량강화, 그리고 국제경기의 효율적 추진과 파견 활성화를 통한 사회, 경제 분야의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국가이미지의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06년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총회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김한나, 2009; 서재하, 박창범, 2011).

7) 이명박(李明博) 정부 (2008~2013년)

(1) 정책기조

이명박 정부의 체육 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한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정책의 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는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스포츠도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원하는 스포츠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스포츠 강국의 위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이명박 정부의 체육 정책의 목표는 2008년 “스포츠 선진국가 실현”, 2009년 “스포츠로 건강한 사회”, 2010년 “스포츠로 스마일 대한민국”, 2011~2012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표 14, 15>.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문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여 체육 친화적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4).

세계 속의 스포츠 한국을 위해 국제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스포츠 도핑방지시스템 확립을 추진하고, 엘리트 체육 경쟁력 분야에서는 2012 런던 올림픽대회 대비 국가대표 선수 양성,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육상발전 계획 추진,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스포츠 의, 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김대광, 박정식, 2013).

표 14. 이명박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2008년 0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 제가 '과' 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2008년 12월 31일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
2009년 05월 01일	직제개편(1국 3과 1팀 50명),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 ⇒ 체육진흥과로 통합,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 변경
2010년 07월 01일	장애인문화체육팀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2명

문화체육관광부 (2012)

표 15. 이명박 정부의 문화비전 5개년 계획 (엘리트 체육 정책 분야)

영역별 목표	추진내용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및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선수 인권보호 체계 구축 -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조성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 태권도의 세계화 -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엘리트 체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런던 하계올림픽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의 과학화 -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 비인기 종목 활성화 - 스포츠 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체육행정 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 선진형 체육 법·제도 정비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2012)

대학스포츠의 고질적 병폐인 수업 결손, 임의 성적 부여 등의 문제와 체육특기자 입학 관련 각종 비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 협의회를 설립하여 대학 간 운동 경기를 대학교육의 하나로 통합하고, 대학스포츠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행정안전부, 2018).

이 같은 체육 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성공 유치 및 개최,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태권도 세계화,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8) 박근혜(朴槿惠) 정부 (2013~2017년)

(1) 정책기조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국정 비전으로 하여 “창의
 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고, “스포츠비전 2018”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5년(2013~2017)의 체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스포츠비전 2018”은 스포
 츠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스포츠가 삶의 방식이 되고 스포츠로 문화융성을 실현하
 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체육 정책의 큰 그림이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스포츠비전 2018”을 통해 제시한 엘리트 체육 정책은 다음과 같다<표 16>.

표 16. 박근혜 정부의 스포츠 비전 2018 (엘리트 체육 정책 분야)

전략	세부추진과제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영재 육성·확대 및 꿈나무·청소년선수 확대 - 학생선수 수업의무화에 따른 ‘체육중점학급 운영 및 과학적 훈련지원, 운동부지도자 교육 강화, 은퇴 후 대비 진로교육 확대 - 지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설치로 과학화 지원대상 확대, 진천·태릉·태백선수촌 기능 특화 - 국제스포츠전문인재 양성 및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 - 국제경기대회 등을 계기로 남북교류 확대, 개발도상국 스포츠지원 확대 및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 태권도 시범 파견확대 - 국제대회 유치기준 및 국고지원기준 강화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성공개최 준비

문화체육관광부(2017)

출산을 저하로 인한 선수자원 감소, 역 피라미드형 선수구조, 우수한 경기력에 못 미치는 국제 스포츠계의 영향력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계 상위 경기력을 가지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 정책이 실현 가능하도록 체육단체와 경기단체 등 체육 행정의 근간을 개선하여 스포츠 관련 단체를 선진화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목별 국가대표 훈련 실시 및 국외 전지훈련을 지원하였고, 국가대표 수당 현실화 및 사망보험금 증액 등 상해보험 지원확대와 선수 건강검진 지원 등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및 선수, 지도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체육단체의 지속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일원화도 추진하였다. 경영혁신부와 통합준비 TF팀을 중심으로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한 결과 2015년 3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의결되고 3월 27일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2015년 5월 18일에는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2015년 6월 26일 출범과 동시에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1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단체는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통합하며, 통합체육회 출범 시부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現 대한체육회 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기로 하였다. 통합체육회 회장선출은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이후인 2016년 10월 31일까지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김영란, 김홍태, 2013; 김헌일, 2013; 박주한, 2017; 이용식, 오연풍, 2014).

표 17. 박근혜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의 변천
2013년 03월 23일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1명
2013년 12월 13일	스포츠산업과 신설 1국 5과 55명
2014년 10월 23일	체육국 ⇒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 체육정책관으로 개칭 1정책관 5과 52명
2015년 01월 06일	관광체육레저정책실⇒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 체육협력관 및 평창올림픽지원과 신설, 1실 4관 12과 126명
2016년 03월 30일	체육관광정책실⇒체육정책실로 개편, 1실 2관 6과 59명

문화체육관광부(2017)

9) 문재인(文在寅) 정부 (2017~ 현재)

(1) 정책기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됨에 따라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체육 정책기조는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이다.

“체육계 적폐 청산과 체육단체의 자율성보장, 그리고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2030 스포츠 비전”을 발표하였다. “2030 스포츠 비전”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수립된 체육 정책이다. “2030 스포츠 비전”의 4대 추진전략은 <표 18>과 같다.

표 18. 문재인 정부의 2030 스포츠 비전의 4대 추진전략

추진전략	핵심과제
신나는 스포츠	- 평생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함께하는 스포츠	-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자랑스러운 스포츠	-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폴뿌리 스포츠	- 민주적 거버넌스

문화체육관광부 (2018a)

표 19. 문재인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

연도	조직의 변천
2017년 9월 4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조직 강화 등을 위한 직제 개편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체육정책실을 체육국 체제로 전환
	평창올림픽지원단 신설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조직 강화 등을 위한 조직 개편 (2차관 1차관보 7실 16관 51과 → 2차관 1차관보 4실 5국 11관 51과 1팀) 체육국(6개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스포츠유산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2018b)

“2030 스포츠 비전”의 4대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신나는 스포츠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함께하는 스포츠는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매개로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자랑스러운 스포츠는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 풀뿌리 스포츠는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국민 참여 중심의 민주적 선진 스포츠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정희준, 2017).

엘리트 체육 정책과 관련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는 <표 20>과 같다.

표 20. 문재인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에 대한 추진전략

추진전략	핵심과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 체육지도자 양성·매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자랑스러운 스포츠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 선수 육성 체계 강화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 국제스포츠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 사업 개발 -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풀뿌리 스포츠	민주적 거버넌스	-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2018a)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의 과제 개요는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구분되는데, 첫째,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이다. 이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제도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은퇴선수 취업지원 강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의 선진화이다. 이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선진화, 체계적 양성체계 구축,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제도 간소화 및 내실화, 체육인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다.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스포츠 시대의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이다. 이는 한반도 통일 대비 체육교류 전략 로드맵 수립, 남북 스포츠장관 정례회담 개최, 남북스포츠교류(가칭) 협약서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둘째,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이다. 이는 합동훈련 등 종목별 교류 확대, 민속종목 및 지역 간 교류 확대, 남북 공동 국제대회·행사 추진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다(박종철, 2017).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의 세부과제는 첫째,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이다. 이는 스포츠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스포츠 공정 인식 개선 및 정착, 스포츠인재 양성시스템 검토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 선수 육성 체계 강화이다. 이는 전문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전략적인 스포츠과학 서비스 지원, 운동선수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체육인이 존경받는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선수의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이다.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의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스포츠 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이다. 이는 국제스포츠 관련 기관 역량 강화,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체계화, 국제스포츠 교류지원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사업 개발이다. 이는 태권도 리더십 강화, 한·중·일 스포츠 교류 확대, 국제스포츠 이벤트 노하우 공유에 대한 내용이다. 셋째,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이다. 이는 국제스포츠기구 내 영향력 증대,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효과성 확대, 스포츠교류 양해각서 체결국 간 교류 실질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체계화와 국제스포츠 교류 전략 마련에 대한 정책방향이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세부과제는 첫째, 숙의형 정책 시스템 도입, 국민과의 소통 강화,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각 부처 간 연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이다. 이는 시·군·구 체육회 중심의 체육단체 운영 체계 마련,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단체의 책임성 및 체육진흥투표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셋째,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이다. 이는 선진화된 법체계 구축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검토,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개별법령 정비 및 법령간 체계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 참여에 의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민주성 제고, 지역 현장 중심의 대국민 스포츠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a, 정창수, 2018).

10) 체육관련 법제, 조직, 재정

(1) 체육관련 법제

한국의 체육관련법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백서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잘 나타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법제처, 2018c).

현재 한국의 법령 수는 약 5,000여건이며, 형식에 따른 피라미드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는 헌법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이며, 사법은 사인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성격의 법으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 동호인 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구성과 사용을, 제4장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10년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과 구매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하였다.

2011년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하였다.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조정하였으며,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관련 벌칙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의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마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강화와 징역,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체육지도자 양성에서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 지정기관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금의 사용항목 중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유사 행위 및 운동경기의 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하였다.

2013년에는 국가 성장 동력의 양대 핵심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

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련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였다.

2014년에는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외에도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였다. 한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 또는 그 지도자로 소집되어 국제경기·훈련 중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였다.

2015년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통합체육회는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사업,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행법에서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도핑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을 강화하였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a; 법제처, 2018a, b).

(2) 체육관련 조직

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체육행정 조직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부터 문교부 교화국 내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1961년 10월 2일 종래 문화국에 속해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었으며 인원 20명, 예산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 후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종전의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분리하였으며,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 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 과가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져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11월 2일

에는 체육국과 사회체육국을 통합하여 체육국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국제경기과, 교육협력과, 재외국민교육과로 정비되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 하계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고, 그 해 11월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6 서울 하계아시아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였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으로 당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으로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기초를 유지하였다. 1988년 6월 18일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회)이 신설되면서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였고, 청소년국의 신설로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에서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었으며 학교체육과가 폐지되고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다. 체육과학국은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한 사실은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 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 정책조정실(청소년 기획관, 청소년 협력관, 청소년 기획과,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지도과, 청소년 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90년 12월 27일에는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되었다.

1993년 3월 6일에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는 문화체육부로 통합되었다. 문화체육부는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

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을 두어 3국 9과 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5월 4일에는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하고,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으나 전체적인 체육관련 조직은 3국 9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체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를 체육정책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생활체육과는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유지하고,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과와 체육교류과를 체육교류과로 통합하는 등 체육담당부서를 1국 4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2국 7과 77명에서 1국 4과 56명으로 21명 감소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체육정책과와 체육교류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1국 3과 40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체육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한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및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및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및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 단위는 '팀' 단위로 재편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팀’ 단위는 다시 ‘과’ 단위로 개편되면서 2008년 12월 31일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생활체육업무 이외에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생활체육과 함께 전문체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장애인문화체육과 역시 기존의 장애인체육업무 이외에 장애인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4일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였으며,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다시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칭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3월 23일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체육과로 개칭되고, 12월 13일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체육국을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에 체육정책관실로 개칭하였고, 1정책관 5과 5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하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지원과 준비를 위해 ‘체육협력관’과 ‘평창올림픽지원과’를 신설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기존 체육정책관실 산하에 있던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평창올림픽지원과가 더해져 총 3개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체육정책관 산하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개편되었다. 정부에 2개 이상의 체육업무 담당국 조직이 운영된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 내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체육국으로 통합된 이후 17년 만이었다.

2016년에는 체육관광정책실이 ‘체육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1993년 체육부가 없어지면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이후 23년 만에 체육업무만을 전담하는 ‘체육정책실’의 실 체제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이 강화되었다. ‘체육정책실’은 ‘체육정책관’과 ‘체육협력관’을 두었으며,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구분하여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로 통합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육성, 스포츠산업 진흥과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과로 구분하여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참가 준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 업무를 주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b).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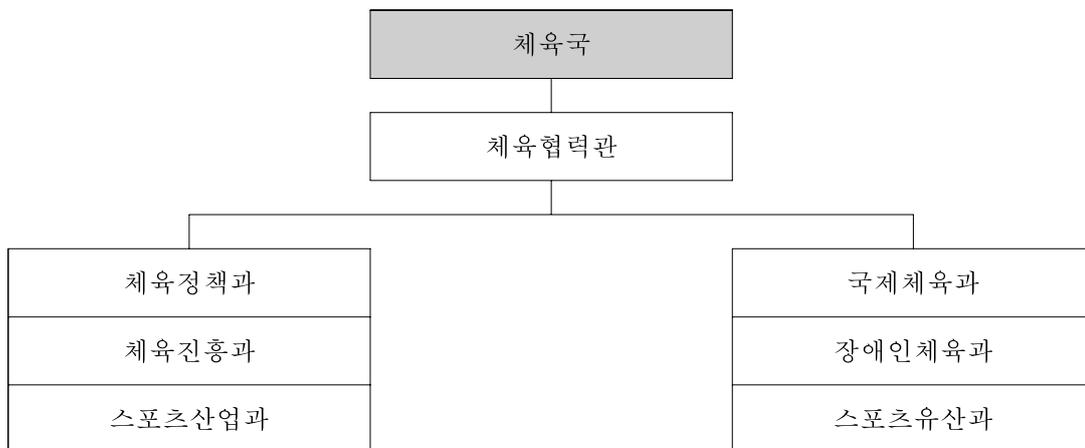


그림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련 조직도

②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가맹경기단체 지원·육성, 올림픽운동 확산 및 보급을 목적으로 1920년 07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규모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12개의 위원회, 사무처, 57개 가맹경기단체, 16개의 시·도체육회, 17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총괄단체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 국제대학스포츠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 FISU),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AN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다(대한체육회, 2018).

1920년 7월 13일 ‘건민(健民)’과 ‘저항’을 이념으로 창립한 조선체육회를 모체로 하여 출발하였다. 1920년 11월 4일 전국체육대회의 기점인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연 이후 종목별 전국대회를 주최하다가 1934년 종목별 경기대회를 통합하여 전조선종합경기대회를 열었다.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26일 해방과 함께 부활했다.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 내에 올림픽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1947년 6월

20일 조선올림픽위원회(KOC)를 설립하여 IOC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1948년 9월 3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 개칭하였으며 1954년 3월 16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되었다.

1964년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분리되었으나 1968년 체육단체 일원화 시책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대한학교체육회가 통합되고 1983년 1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무처는 일원화하였지만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위원총회 등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존치·운영해왔다. 2009년 6월 24일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완전히 통합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246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체육단체 통합 개시 관련 동 법률과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54호)에 근거하여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5년 6월 26일부터 20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체육회 정관 및 체육단체 통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정을 심의, 의결하여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KSOC)로 결정하였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이원화된 체육 시스템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의 벽을 허물어 스포츠로 국민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스포츠 선진국 도약에 큰 이정표가 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출범하였다(대한체육회,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17).

대한체육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첫째,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교체육 및 국민체육 육성 보급. 둘째,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IOC의 후원을 받는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간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구성·과전. 셋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국내개최를 위한 후보도시 선정 및 대회 국내 개최 시 대회의 총괄, 조직 및 관리. 넷째, 국제스포츠 교류, 국제체육기구회의, 올림픽운동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업. 다섯째, 스포츠와 관련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섯째, 가맹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지원 및 육성. 일곱째,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여덟째, 스포츠 의·과학의 진흥과 선수·지도자의 육성 및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아홉째, 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열째, 체육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열한째,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등이다. 대한체육회의 조직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대한체육회,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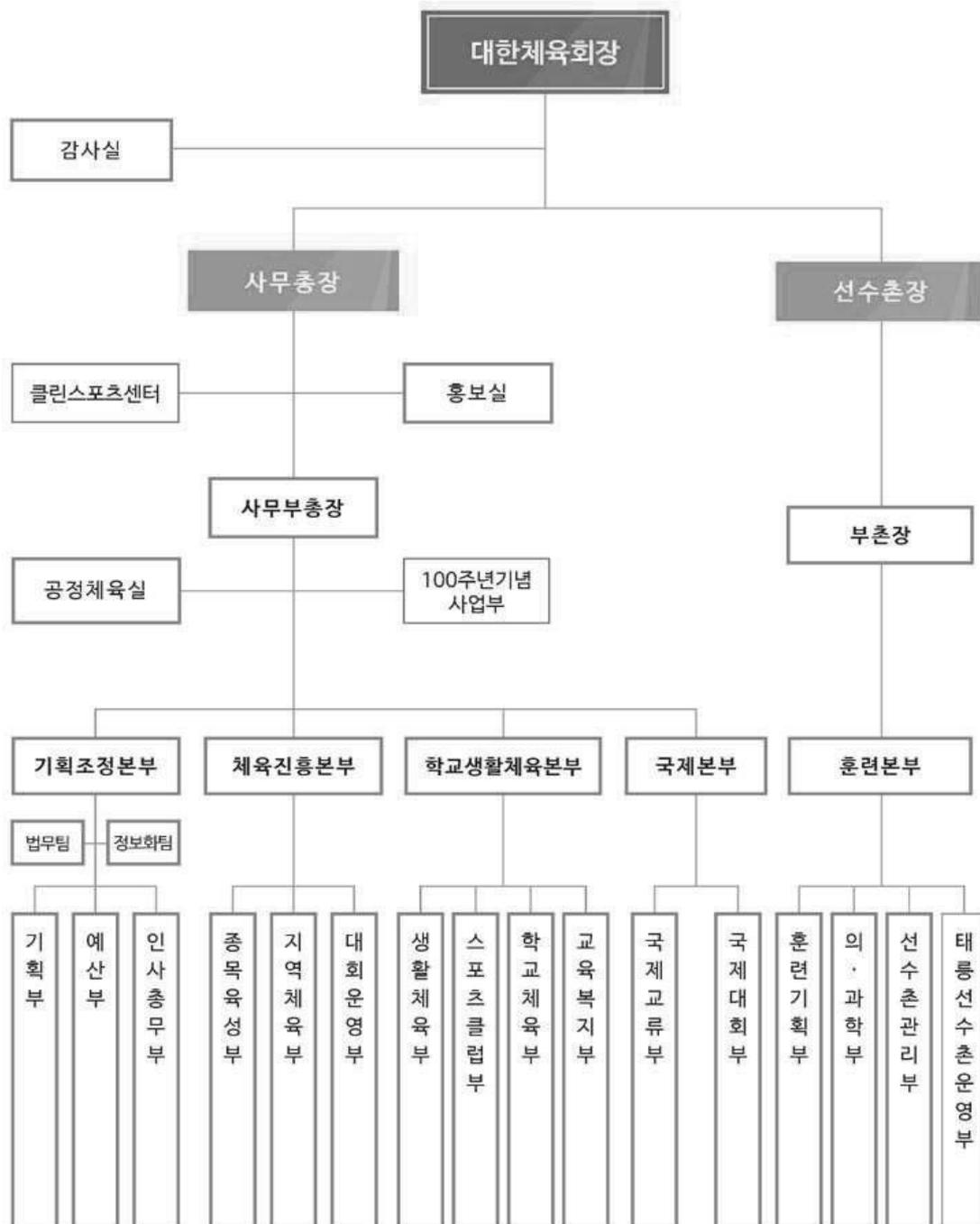


그림 3. 대한체육회 조직도

③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정책 개발 및 지원, 스포츠과학의 체계적·종합적 연구,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 연구 및 지원,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 지원, 국내외 스포츠 지식 및 정보전파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원장 이하 생명윤리위원회와 3개의 연구실,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4>, 체육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실천전략 마련,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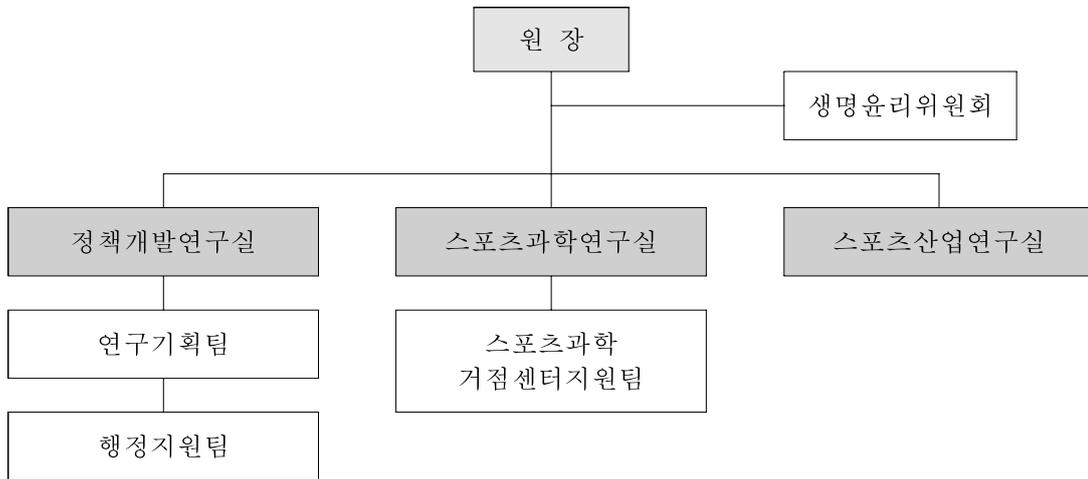


그림 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직도

(3) 체육관련 재정

한국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0.11%, 2008년 0.13%, 2009년 0.11%, 2010년 0.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0.7%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4년에는 0.06%, 2015년에는 0.05%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0.05%로 2015년과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21>.

표 21. 최근 10년간 한국 정부의 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정부예산(A)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문	
		예산(B)	점유율(B/A, %)	예산(C)	점유율(C/A, %)
2007	1,641,435	12,681	0.77	1,812	0.11
2011	2,099,303	19,603	.093	1,559	0.07
2016	2,683,871	27,679	1.03	1,357	0.05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7)

그 중 엘리트 체육예산은 2007년 179,341백만원, 2008년 193,058백만원, 2009년 177,563백만원, 2010년 42,404백만원으로 대폭 감소였으며, 2011년 43,128백만원, 2012년 40,845백만원, 2013년 47,131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체육재정은 정부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륜, 복권, 토토 등의 수익금의 일부를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11) 요약 및 논의

한국의 엘리트 체육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10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엘리트 체육 정책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 내용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1940년대의 한국 체육은 일본의 침략에 따른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활쏘기, 씨름, 태권 등 한국 고유의 민속놀이와 학교 체육활동을 엄격히 통제 당한 침체기였다. 엘리트 체육 또한 우수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에 의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다. 이 시기의 한국은 체육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독립의 꿈을 키웠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국은 광복과 6·25 남북 전쟁 등으로 사회적 혼란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체육 분야에서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놀이 중심의 체육 활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었으며, 국제마라톤대회 승리를 차지하는 등 체육은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체육은 1960년대부터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제3공화국인 박정희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정부) 주도의 입시관련 체육 정책과 국민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태릉선수촌 설립, 한국체육대학 설립,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체육 정책은 국가(정부) 주도의 체육 정책으로써 국내외에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 수단으로 체육을 이용하였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는 집권 이후 ‘선진 조국 창조’라는 슬로건과 함께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국가(정부) 주도하에 엘리트 체육의 지원·육성 정책이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프로스포츠 출범, 체육행정 개편, 태릉선수촌 내 스포츠과학연구소 설치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통해 체육이 ‘국민의 명량한 생활영위’에서 ‘국위선양’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위선양이 국가 체육 정책의 최종목적이라는 것을 표명하였다.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지칭될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체육 정책을 통해 정권획득의 정당성 보장과 정권

안정화를 시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표출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6공화국 진입 후 노태우 정부는 88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을 시작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과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는 엘리트 체육에서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 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점차 변화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이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새롭게 발족하였으며,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의 체육 정책은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적 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엘리트 체육을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범국민적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엘리트 체육 정책은 엘리트 체육의 지속성(지원·육성),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체육과학의 진흥,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등이 수립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체육지도자 양성,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 체육시설 확충, 경기단체 재정자립 기금지원 및 법인화, 체육용·기구 품질향상 지원,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준비 등 주요 사업 추진하였다. 또한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체력과 비만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기회부여, 여가활동 기회확대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종합적·체계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 시기의 한국은 FIFA 월드컵대회 성공 개최의 성과를 이루어냈고, 월드컵 4강 진출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써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의 획기적 제고로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선양,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국제 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의 체육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한국 체육은 다양한 정책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체육관련 전 분야에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며 스포츠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및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엘리트 체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 체육행정 시스템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한 체육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성공 유치 및 개최,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태권도 세계화,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스포츠 비전 2018’ 정책을 통해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스포츠로 국격을 바꾼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를 진행하였다.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입지를 강화, 스포츠 관련 단체를 선진화,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의 전지훈련 지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및 선수, 지도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체육단체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여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2030 스포츠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 복지 국가를 실현과 사회통합, 스포츠 문화 형성, 민주적 선진 스포츠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엘리트 체육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수립되어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체육계의 적폐 청산과 체육단체의 자율성보장,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집권 내 체육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체육관련 조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권 시기별로 많은 변화를 거쳐 2008년부터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었다. 주요 업무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전통문화 보전·계승,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국 체육의 대표 조직인 대한체육회는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가맹경기단체 지원·육성, 올림픽운동 확산 및 보급을 목적으로 1920년 07월 13일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체육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정책 개발 및 지원, 스포츠과학의 체계적·종합적 연구,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 연구 및 지원,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 지원, 국내외 스포츠 지식 및 정보전파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0.05%이며, 체육재정은 정부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륜, 복권, 토토 등의 수익금의 일부를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상 한국의 체육 정책은 정권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간의 정책을 통해 통합체육회 출범, 4대 스포츠 이벤트 대회의 성공적 개최(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스포츠 시스템 구축에 선진화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

1) 마오쩌둥(毛澤東, Mao Zedong) 정부 (1949~1976년)

(1) 정책기조

마오쩌둥의 사상(思想)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결부시킨 것이며, 사상과 기본적 정치 이념으로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등은 마오쩌둥 정부 정책 결정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마오쩌둥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체육과 정치의 관계, 체육의 가치 등을 인지함으로써 체육을 활용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엘리트 체육 발전에 주력하였다.

“희생하려는 전근대성 문화와 시장 정책 문화를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표 22. 마오쩌둥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진 내용
엘리트 체육 강화	-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共靑團)의 체육행정 관리 - 국가체육 운동위원회(國家體育運動委員會) 설립 - 거국체육(學國體育)체제 수립
체육교류 강화	- 평풍외교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 - 국제스포츠대회 출전

선행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함

건국 초기 중국의 상황은 해방전쟁 직후로써 내부적으로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잔여 세력이 남아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한국의 전시(6·25 전쟁) 상황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엘리트 체육 발전을 중시하였다. 그 당시 체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당 청년조직인 공청단(共靑團)이

중앙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구체적인 체육관련 사업을 관리하였다. 이에 공청단은 각 지방에 군사체육부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참여, 단합시키는 등 체육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國家體育總局, 1990).

이후 정부는 체육 분야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체육을 통한 국민 통합, 국민 체력증진, 국방력 강화 등의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사업을 속개하였고, 1952년 11월 15일 국무원(國務院, 구. 정무원/政務院) 제19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체육운동위원회(國家體育運動委員會)가 설립되었으며, 제15회 올림픽 참가를 위한 「전문 체육선수 집중양성」이라는 통지문을 반포하여 엘리트 체육 발전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실행하였다(國家體育總局, 2018a).

1953년 마오쩌둥(毛澤東)은 「소련을 따라 배우자」는 내용을 지시하면서 전국의 각 영역에서는 소련의 학습 방법을 경험하고자 하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배경은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에서 출발한 소련의 체육 정책이 가장 선진적인 것이며, 오늘의 소련의 모습이 곧 내일의 중국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소련의 체육 정책을 모델로 하여 학교체육 및 아마추어 체육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소련의 엘리트 체육을 배경으로 한 중앙집권제의 거국체육(舉國體育)체제가 수립 되면서부터 장기간 중국의 체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李秀梅, 2001).

또한 중국 정부는 1954년 전국의 각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와 현(縣)이상의 지방에 체육운동위원회(體育運動委員會)를 설립하였고, 군에는 해방군운동협회(解放軍運動協會)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육관련 전문적인 체제를 구축한 중국은 1955년 10월 베이징에서 제1회 전국 노동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자 체육대회는 정부 수립 이후 중국의 엘리트 체육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첫 대회로 약 1,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나, 이 대회는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1985년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50년대 후반기부터 엘리트 체육 정책의 방향에 따른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수영, 탁구 등의 종목의 세계대회 우승을 자치하였으며, 1959년 중국의 탁구 선수 룡궈탄(容國團)이 제25차 세계탁구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후 1961년 중국 탁구대표 선수들은 제26차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 정부는 엘리트 체육의 외교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였고, 이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것이 중국의 대표적인 「핑퐁 외교」이다. 1958년 중국은 올림픽대회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 스포츠 경기 참여와 관련하여 대만과의 정치적 문제(일개중국, 一个中國)에 휩싸이면서 두 개의 중국을 조작하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및 다수의 기타 국제 스포츠 협회와 관계를 단절하여 국제경기대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합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장기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당시 국제 냉전 체제와 기타 변수들의 제한으로 인하여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國家體育總局, 1990).

오랜 기간 올림픽에 불참하과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스스로 소외되었던 중국은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3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서 중·미 탁구팀 간의 상호 방문경기를 통해 당시 적대적 국가였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스포츠 그리고 작은 탁구공 하나로 세계적인 국제교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체육의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핑퐁외교를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은 일본, 미국 두 나라와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를 이루어냈으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 재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핑퐁외교의 성공과 더불어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임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 되었으며, 미국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1972년02월21일~28일)하여 양국은 상해에서 중·미 상해공보(中·美 上海公報)를 발표하였다. 이 공보에서 미국은 (일개중국, 一个中國) 즉,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년간 중·미 양국을 단절시켰던 냉전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체육을 통한 외교정책의 성공과 국제 냉전관계의 개선은 「중화 전국 체육총회(中華全國體育總會)」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후 중국은 1973년 11월 17일 개최된 아시아 스포츠 연합이사회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1974년 9월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다(國家體育總局, 1990).

마오쩌둥(毛澤東)은 엘리트 체육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 「우의제일, 시합제이(友誼第一, 比賽第二)」를 강조하였다. 즉, “체육은 인간간의 친선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경기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스포츠의 외교적

역할과 함께 엘리트 체육의 도덕적 가치에 있어 우정은 경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 인문주의 체육사상이 현대올림픽의 ‘평화, 우의, 진보’라는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총체적으로 이 시기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건국 이후 10여 년 간의 노력을 거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련을 모델로 한 거국체제하에 국가에서 엘리트 체육 정책을 계획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경기력 향상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동아병부(東亞病夫)」라는 수모를 탈피함으로써 중국 체육이 세계 정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國家體育總局, 1990, 2018).

특히 이러한 시기에 마오쩌둥(毛澤東)의 스포츠외교 사상은 「핑퐁외교」 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이미지 개선과 경기력 수준을 제고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덩샤오핑(鄧小平, Deng Xiaoping) 정부 (1976~1989년)

(1) 정책기조

1986년 2월 체육운동위원회는 ‘체육체제개혁의 결정안(體育體制改革決定案)’을 반포하여 엘리트 체육의 체제에 대한 개혁을 체육의 과학화, 사회화, 세계화에 두었다. 이러한 개혁안의 실시는 엘리트 운동선수의 육성을 국가차원의 육성에서 기업과 국가, 그리고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환함으로써 운동선수의 육성체제가 다양화 되었다.

“개혁 개방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개혁개방 후 중국은 엘리트 체육의 경기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경기체제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경기체제의 개혁은 과거 국가의 계획적인 선수육성시스템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다 형식, 다 경로, 다 단계의 선수육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포츠의 보급과 제고를 추진하였다.

표 23. 덩샤오핑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진 내용
엘리트 체육 강국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국체육(舉國體育)체제→ 시장경제화 체제로 전환 - 국가체육위원회의 스포츠 영역별 관리체제 구축 - 경기수준, 분급경기제 도입, 경기 사회화 추진 - 훈련체제 개편 - 올림픽대회 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양식 제시
국제스포츠 입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개방 이후 국제스포츠대회 재등장 - 국제스포츠대회 입상을 통한 입지 강화

선행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함

① 스포츠경기에 대한 영역별 관리체제 구축

개혁개방 이전 중국 스포츠의 주요목표가 스포츠 지식의 보급과 인민들의 사회 체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이었다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스포츠의 경

기 기술의 향상이 주요 임무로 되었다.

개혁개방 후 “세계를 향해, 세계로 나아가자(面向世界, 走向世界)”는 전략에 따라 엘리트 체육 정책은 “국내에서 훈련하고, 대외에 맞서자 (國內練兵, 一致對外)”는 슬로건 아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전략방침을 목표로, 엘리트 선수의 육성, 기술수준의 제고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80년대 중기 엘리트 체육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가 체육위원회에서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조화를 위하여 스포츠경기대회를 분류 관리하는 스포츠 경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전국적인 스포츠경기를 세 영역으로 분류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전국체전, 전국도시체전, 전국청소년체전 등과 같은 전국대회는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였으나 챔피언리그, 각종 컵 리그 등의 종목별 경기는 각 종목 협회에서 관장하고 기업 간의 전국경기는 기업의 스포츠부설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경기수준이 높은 운동선수나 팀을 육성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의 주요 목적이었으며, 이는 1980년대 스포츠 체제 개혁의 주요 사안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경기규정, 경기일정, 경기시설 등을 모두 국제표준에 맞추면서 수준에 따라 경기를 치르고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1986년부터 운동선수의 과학적인 육성과 경기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연령으로 분류하여 경기를 치르게 하였는데 12세 이하의 소년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육상, 수영 등의 10개 종목이었으며 그 외 종목들은 성(省)급 대회에서만 경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의 엘리트 체육 경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주요 국제대회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영역으로서 종합 전국스포츠대회인 전국체전은 4년마다 올림픽대회 이듬해에 개최하여 신인선수를 발굴한 후 아시안 게임을 거쳐 다음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영역으로서 전국청소년운동회, 전국대학생 운동회, 전국중학생운동회, 전국근로자 운동회, 전국농민 운동회, 전국 군인 운동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각 종목 전국선수권대회, 초청대회, 후원자컵 대회 등이 있다. 세 번째 영역으로서 각 지방의 대회인 성(省)운동회, 시(市)운동회, 단일 종목대회 등이 있다.

② 경기수준, 연령에 따른 분급경기제(分級競技制)의 실시와 경기의 사회화 추진

올림픽대회를 최종 목표로 전략을 세운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종합 경기를 스포츠 종목, 참가대상, 득점방법, 시간배치 등을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다 단계 경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국규모의 경기는 운동 기술 수준으로 단계를 나누고, 청소년 경기는 연령, 성(省)급 경기는 청소년 선수에 초점을 맞추어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1980년대 시장경제의 가시적인 발전으로 스포츠경기는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경기 참여 주최의 사회화, 스포츠 경기 투자의 사회화, 스포츠경기 관리수준의 향상 등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경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각종 경기는 규범화되었다. 전국체전과 도시대회 등 전국종합경기대회는 국가체육운동위원회, 대·중학생운동회는 국가교육부, 노동자운동회는 공회(工會), 소수민족운동회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장애인운동회는 국가민정부, 농민운동회는 농민체육협회에서 관장하는 등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1988년부터 전국규모의 경기 중 사회단체에서 주최한 대회는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③ 훈련체제의 개편

올림픽대회 종목은 매우 다양하여 어느 국가도 전 종목에 강하지는 못하다. 그리하여 인력, 물력, 재력 등에 한계가 있는 중국도 모든 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성(省)급 운동부는 주로 각 성(省)의 체육운동회에서 훈련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단일체제는 국가의 부담을 갈수록 늘게 하여 운영방식이 매우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동시에 감독에 대한 책임제와 임용 제도를 채택하였다.

1979년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서는 “운동선수의 육성경로를 넓히고 산업체에서의 운동부 육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우수한 경기종목에 대한 집중지원, 구조조정을 통한 종목의 재편성, 우세종목과 단기훈련을 거쳐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운동선수의 육성에 비중을 가하는 것이었다.

④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른 올림픽운동의 새로운 발전양식 구축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 정권은 ‘핑퐁외교’를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대만과의 ‘하나의 중국(一个中國)’이란 정치적 문제로 IOC를 탈퇴하고 20여년이나 올림픽에 불참하고 세계 스포츠무대에서 스스로 소외되었던 중국은 국제스포츠무대에 재등장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른 올림픽운동의 새로운 발전양식(奧運模式)을 제기하여 올림픽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된다. 1979년 초, 덩소핑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한다는 제안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며 대만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만 온다면 우리는 그곳의 현실과 제도를 존중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덩소핑의 ‘일국양제(一國兩制)’사상 구상의 첫 공개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이론에 따라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새로운 올림픽 발전양식(奧運模式)즉 한 개 중국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합법적 올림픽대표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이고 그 명칭은 중국올림픽위원회(Chinese Olympic Committee)이며 소재지는 북경,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대만은 중국의 한 지역의 신분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며 대만 올림픽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중국대만올림픽위원회(Chinese Taipei Olympic Committee)이고 소재지는 타이페이(台北), 이미 사용하였던 국기와 국가를 금지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새로운 국기와 국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국양제(一國兩制)’ 사상에서 비롯된 ‘올림픽 발전양식(奧運模式)’이다.

‘핑퐁외교’는 중국스포츠가 국제스포츠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올림픽 발전양식(奧運模式)’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가입과 국제스포츠참여의 통로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 발전양식(奧運模式)’은 한 개 중국이란 원칙을 버리지 않으면서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과 국제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이상”에 따라 대만을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의 올림픽 참여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올림픽 발전양식(奧運模式)’은 덩소핑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사상이 체육영역에서의 생동한 표현이며 중국의 스포츠외교정책으로 수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제7회 테헤란 아시안게임, 제8회 방콕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51매의 금메달, 54매의 은메달, 46매 동메달을 획득하여 단체순위 제2위에 입상하였으며 제1위의 일본과의 경기수준 차이를 줄였다.

또한 21년간 관계를 단절하였던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화전국체육총회(中華全國體育總會)는 중국의 합법적 올림픽대표 조직으로 국제스포츠 무대에 재등장하였으며 중국은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가시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1984년에 열린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서 사격선수 허해봉은 중국 올림픽역사상 금메달을 처음 수여하였으며, 금메달 순위 세계 4위를 기록하여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스포츠 무대에 등장하면서 중국의 사회 체육의 열풍을 일으켰다. 1998년의 통계에 의하면 건국 이래 중국 운동선수들은 세계우승 1206여회, 세계기록을 960여회 갱신하였는데, 그 중 세계 우승의 98%, 세계 기록의 93%는 개혁개방이 후 획득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國家體育總局, 1990, 2018a).

3) 장쩌민(江澤民, Jiang Zemin) 정부 (1989~2002년)

(1) 정책기조

덩샤오핑 정부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른 오운모식(奧運模式)은 중국 스포츠가 세계로 향하는 계기와 조건을 창조하여 좁과 동시에 더욱 큰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문화대혁명 전 중국의 올림픽대회 순위는 10위였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40위로 하락하였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스포츠 경기수준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종목에 있어서 세계 스포츠 강국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서는 보급(普及)제고(提高)가 결부되고 경기수준 향상에 중점을 둔 엘리트 체육 정책을 시행하여 엘리트 체육 수준의 향상을 시도하였다.

“덩샤오핑 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21세기 전면으로 확대하자”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표 24. 장쩌민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진 내용
엘리트 체육 강국 건설의 지속성	- 올림픽 영광을 위한 전략적 계획(奧運爭光計劃綱要) 수립 - 국제스포츠대회 대비 경기,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양성 - 프로스포츠 도입
	-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체육 강국 입지 강화

선행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함

장쩌민 정부의 엘리트 체육 강화 정책은 바로 위와 같은 배경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1995년 국무원(國務院)의 비준을 거쳐 체육운동위원회는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추진하는 ‘올림픽 영광을 위한 전략적 계획(奧運爭光計劃綱要)’를 반포하여 올림픽에서의 승리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01년 2월 7일에 개최한 ‘전

국 체육국장 회의(全國體育局長會議)’에서도 엘리트 체육의 강화 정책으로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자(發展競技體育).’고 제시하여 계획에 대한 정부의 결심을 표명하였다(國家體育總局, 2001).

중국의 스포츠 강화 정책은 스포츠 선진국들의 스포츠정책과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도 중국사회의 특정현상에 맞추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발전 형태는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78년을 계기로 덩샤오핑 정부에서 장쩌민 정부에 이르는 스포츠에 대한 체제전환을 통하여 거국체육(舉國體育)체제에서 시장화체제로의 전환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격을 거두었다. 중국의 엘리트 체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주도적인 지도역할, 사회기업들의 후원, 인민의 참여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엘리트 체육 관련 시스템이 스포츠의 발전에 비교적 적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트 강화 정책을 통해 중국의 모든 엘리트 체육 경기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리고 중요한 국제스포츠경기에 대비하여 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첫째, 전국체전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종합적인 전국체육대회이다. 전국체전은 올림픽 이듬해에 개최되므로 신인선수를 발굴하여 아시안 게임을 거쳐 다음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둘째, 전국청소년운동회, 전국대학생 운동회, 전국중학생 운동회, 전국근로자 운동회, 전국농민운동회, 전국 군인 운동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각 종목의 전국선수권대회, 초청대회, 후원자 컵 대회 등이 있다.

셋째, 각 지방의 대회에는 각 성의 운동회(매 4년),각 시의 운동회, 단일 종목대회 등이 있다. 또 선수의 경기력 수준에 대한 등급과 엘리트선수의 대우는 3급, 2급, 1급, 건장(健將), 국제건장(國際健將)등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수들이 일단 성(省), 직할시, 자치구 체육운동학원, 대표팀의 선수가 되면 훈련비와 월급이 지급되며 이는 운동경력, 운동수준, 운동종목에 따라 다르다. 그 외 올림픽이나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신기록을 세우면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되고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여도 지방정부에서 내리는 거액을 포상금을 받게 되며 주택까지 무료로 분양해준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은퇴한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종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비교적 쉬운 편이다.

선수선발체제는 꿈나무 선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

다. 현재 보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선수선발의 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사의 경험에 따라 꿈나무를 선발한다.

둘째, 구(區), 현(縣)이상의 업여(業餘)체육운동학교(체육인재 육성학교)는 코치의 경험, 선수선발의 간단한 지표 등으로 선수를 선발한다.

셋째, 시(市)이상 체육운동학교에서는 전문 체력테스트, 문화시험, 선수선발지표 등을 이용하여 선수를 선발한다. 선발 후 일정기간(1~3개월) 관찰하여 전망이 있다고 판정받은 선수만 정식으로 선발된다.

넷째, 성(省)이상 체육운동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선수선발 '영도소조(領導小組)'를 운영하여 매년 선수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지역에 맞는 기준도 작성하여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선수선발에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코치가 선수선발 시 감독역할도 한다(國家體育總局, 1997).

장쩌민 정부는 이와 같이 엘리트 체육 강화정책을 통하여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에 대한 보급(普及)제고(提高)가 결부되고 경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학교체육, 사회체육, 엘리트 체육이 조화되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엘리트 체육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체육체제 개혁에 있어서 축구는 프로화를 실현하는 돌파구가 되었다. 1992년에 개최된 홍산회의(紅山會義)에서 중국 축구협회는 축구를 모델로 한 실업화, 클럽제도와 스포츠산업개발을 중점으로 한 프로화의 전환을 결의하였다. 그 결의는 당시 자금이 부족하고 곤경에 직면한 省, 市급 축구팀들에 생존기회를 부여하였다.

1993년 11월 3일 사천성 성도시의 전흥(全興)회사와 사천성 운동기술학원이 합동으로 중국 역사상 첫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였으며 전흥(全興)회사는 구단에 인민폐 100만원을 투자하였다. 그 해 처음 클럽제를 근간으로 한 프로축구 甲A 경기가 진행되었다.甲A경기는 출범 6년 만에 관람자가 217만 명이 되어 매 경기 평균 1만 6,000명 수준이 되었다. 상해 申花팀은 연 경비 100만원 규모에서 프로화 실시 이후 매년 축구시장에서 창출한 이익이 2,300만원에 달했다.

축구가 시장경영에 진입한 후 발생한 거대한 반응은 스포츠시장의 번영이었다. 축구프로화의 성공적인 출현으로 중국의 프로스포츠는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무술 등의 종목에서도 이루어졌다. 프로 농구는 1995년 중국농구협

회 CBA(ChinaBasketballAssociation)라는 이름으로 프로화를 실행하였고 중국배구협회는 1996년 홈 앤드 어웨이 연합 경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의 중계권과 광고권을 확보하여 복장 및 스타선수들의 전리품 판매 등과 같은 스포츠산업도 발전시켰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國家體育總局, 1999, 2002, 2018).

4) 후진타오(胡錦濤, Hu Jintao) 정부 (2002~2012년)

(1) 정책기조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전면적 샤오강(小康)사회 건설을 관통하는 지도이념으로 “중화민족주의”와 “과학적 발전관”이 제시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 정책의 핵심기조였던 이 두 가치가 재강조된 것은 중국이 지향하는 발전의 방향이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현실적 달성을 견인해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흔들림 없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고,
전면적 샤오강 사회의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후진타오 정부는 2008년 올림픽을 원만히 개최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삼았다. 즉, 장쩌민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승하는 한편 계속하여 엘리트 체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엘리트 체육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며 가능한 운동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스포츠사업인 베이징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표 25. 후진타오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 진 내 용
엘리트 체육 강국 건설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영광을 위한 전략적 계획(奧運爭光計劃綱要) 수립 - 국제스포츠대회 대비 경기,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양성 - 프로스포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체육 강국 입지 강화 - 베이징 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선행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함

후진타오는 엘리트 체육 정책은 주로 국가체육총국에서 반포한 2001~2010년, 2011-2020년 올림픽에서 좋은 경기성적을 올리기 위한 계획 강령(奧運爭光計劃綱要)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강령은 200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순위 3위 이상을 쟁취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목표달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도 규정하였다. 강령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중국의 국정과 엘리트 체육의 지난 경험에 의해 현 시기 엘리트 체육 정책의 핵심은 바로 당과 국가의 영도 아래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며,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체육전선의 임무일 뿐 만 아니라 베이징시의 임무이며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의 고도로 되는 관심과 정책적 지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들의 밀접한 호응과 배합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는 유력한 스포츠지도부를 구축하고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여 현 정부의 스포츠 사업에 대한 기본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낸 선수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격려를 동시에 진행하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전국의 스포츠 자원을 통합해야 하며, 스포츠계에서는 오운쟁광계획강요(奧運爭光計劃綱要)을 열심히 시행하여 우세경기종목에 대하여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합리적인 종목배치를 진행하며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견지하고 엘리트 체육 강화정책을 견지하여 엘리트 체육 경기기술을 제고하여야 하며 수준이 높은 운동팀의 건립을 강화하고 운동훈련을 강화하고 훈련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國家體育總局, 2001, 2003, 2009, 2011).

이처럼 후진타오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덩샤오핑과 장쩌민 정부시기에 진행된 개혁체제를 토대로 강력한 정책규범을 제정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후진타오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국 스포츠의 우수한 성과와 업적은 실현되었으나, 스포츠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 스포츠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스포츠는 끊임없는 추구이자, 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스포츠에서 중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수많은 금메달과 눈부신 성장에도 스포츠의 가장 기초적인 육상, 수영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고,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구기 종목(축구 등) 또한 전체적인 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거나, 뒤쳐져 있기 때문에 국가와 인민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뒤쳐져 있는 종목들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정부 (2012~현재)

(1) 정책기조

시진핑 정부는 당 대회를 통해 중국이 신시대(新時代)에 진입하였음을 선언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정립과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지혜, 중국방안, 중국정신, 중국가치, 중국역량 등을 통해 강력한 중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진핑의 의지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

(2) 엘리트 체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표 26. 시진핑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

정 책 과 제	추 진 내 용
엘리트 체육 강국 건설의 지속성	- 국제스포츠대회 대비 경기,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양성 - 프로스포츠 활성화 - 중국 축구 발전 계획 제시(축구굴기, 蹴球崛起)
	-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체육 강국 유지 - 체육계 승부조작, 비리 척결 강화

선행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함

국제스포츠에서 중국이 스포츠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이전 정권과 유사하다. 현재까지 중국 스포츠의 우수한 성과와 업적은 실현되고 있으나, 유독 구기종목인 축구에서 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시아에서도 중위권 정도에 머물 정도로 세계적인 약체 수준이이며,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02 FIFA 한국/일본 월드컵이 유일하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굴기(蹴球崛起) 즉, “축구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정책을 제시하였고, 2015년부터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능력이 있는 강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축구 부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축구굴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다. 굴기라는 말은 전임 주석인 후진타오의 외교노선이었던 “화평굴기(和平崛起)”에서 따온 말로 굴기란 산봉우리가 솟아나듯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처럼 축구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정책 개혁은 중국 축구 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15년 1월 호주 아시안컵 경기에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3전 전승으로 8강에 진출하자 중국 축구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중국 프로축구 리그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제시와 함께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여개의 초·중등학교를 “축구특성화학교”로 선정하고, 200여개의 대학 축구팀을 창단하며, 30여개의 학교축구 시범 구·현(區·縣)을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시진핑은 축구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축구 경기장을 7만개로 늘리고, 1만 여개의 축구 유치원을 전국에 걸쳐 개설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였다(國家體育總局, 2014, 2016, 2017a).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덩샤오핑은 1979년 축구선수를 어릴 때부터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시진핑도 월드컵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자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2020년까지 축구선수 5000만 명 육성, 2030년까지 아시아 축구 제패(制霸), 2050까지 세계 제패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중국 축구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축구굴기”를 앞세운 중국은 기업과 함께 해외 최상위급 축구 구단을 인수합병, 지분 매입, 월드컵 후원(19개 후원사 중 7개가 중국 기업), 유소년 축구아카데미 설립, 유소년 축구 유학 등을 통해 중국 축구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고 명성을 얻는데 성공하면서 시진핑의 국내외 정치적 입지 또한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시진핑은 체육계의 승부 조작, 비리 근절을 위해 일명 “슈퍼 사정기구”를 출범시켜 일부 국가체육총국의 간부, 중국축구협회 임원, 감독 등 부패관리들을 사정없이 처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였다. 이는 축구굴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체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척결 작업이며, 중국의 축구 진흥 정책이 국가 전략임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國家體育總局, 2013, 2015, 2018).

6) 체육관련 법제, 조직, 재정

(1) 체육관련 법제

체육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체육 정책의 법제화, 규범화를 이루었다. 마오쩌둥(毛澤東) 체제 당시 스포츠에 대한 규정, 법규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의 법규는 대부분 지도자의 연설 혹은 정부의 행정적 조치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스포츠분야에서의 시장 경제화가 이루어지고 스포츠 수준이 향상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법제 건설이 강화되었다(國家體育總局, 1990). 특히 1995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의 반포와 시행은 중국의 체육 정책이 법제화, 규범화의 길로 들어선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법에 따른 스포츠의 행정(依法行政), 법에 따른 스포츠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國家體育總局, 2003, 2009).

마오쩌둥(毛澤東) 체제의 스포츠에 대한 규정, 법규는 건국 후 사회주의 스포츠 조직기구와 체제의 수립, 국민의 체질증진, 전문체육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이후의 스포츠 법제 건설을 위하여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법규는 대부분 지도자의 연설 혹은 정부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마오쩌둥이 제기한 ‘건강 제1, 학습 제2(健康第一, 學習第二)’의 발언, “체육운동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체질을 증진하자(發展體育運動, 增強人民體質).”, “삼호(三好)” 즉 “신체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며 사업을 잘하자(身體好, 學習好, 工作好)”, “우의 제1, 시합 제2(友誼第一, 比賽第二)”, 朱德 부주석의 “인민의 체육을 보급하여 생산과 국방이익을 위하여 기여해야 한다(普及人民體育爲生產和國防服務).” 등은 지도자의 주요 강연이나 제사(題詞)내용을 체육 정책의 근거로 삼아 정책으로 응용한 경우이다(李秀梅, 2001).

1953년에 마오쩌둥(毛澤東)의 “소련을 따라 배우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전국의 각 영역에서 소련의 경험을 학습하는 붐이 일어났고 스포츠 영역에서도 소련의 스포츠 체제를 본 딴 노위제(勞衛制)를 실시하게 된 경우, 1957년에 마오쩌둥이 행한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 것에 관한 문제(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

盾의 問題)”란 연설에서 “우리의 교육 방침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덕육(德育), 지육(智育), 체육(體育)등 여러 면에서 발전을 이루어 사회주의 각오를 지닌 문화적인 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주의 중국의 교육 방침으로 제정되고, 이 교육방침이 1985년 중국의 체육체제 개혁이 있기 까지 지속되어 온 경우, 마오쩌둥의 ‘우의 제1, 시합 제2(友誼第一, 比賽第二) 즉 “체육은 인간간의 친선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경기의 결과”라는 주장이 중국 전문체육의 다년간의 방침으로 결정된 경우도 지도자의 사상이나 발언을 토대로 체육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李秀梅, 2001).

그러나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민주와 법제”라는 개혁개방 시기의 임무가 제기되면서 스포츠분야의 법제 건설도 국가 법제 건설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강화되었고 신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國家體育總局, 2009, 2013, 2015, 2017a).

첫째, 입법 활동이 많아지고 입법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 통계에 따르면 11기 3중 전회 이래 1992년까지 제정하여 반포한 스포츠행정 법규와 규정제도는 전체 스포츠법규와 규정 제도 건수의 87%를 차지한다. 동시에 입법의 내용과 범위도 광범위해졌는데, 1988년부터 초안한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은 중국 스포츠법제 건설의 공백을 메웠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 스포츠법제 건설의 기초가 되었다.

둘째, 스포츠입법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국가체육위원회가 1987년 7월 반포한 “스포츠법규의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정(關於制定體育法規程序的規定)”을 보면, 바로 법규의 명칭과 입법의 원칙, 계획에서부터 법규의 초안, 심의, 반포 및 실시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입법 절차가 점차 순서에 따라 규범화되고 법제화된 궤도에 들어서게 하였다.

셋째, 스포츠법제 기구의 건설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1987년에 국가체육위원회 사무국(辦公廳) 산하에 입법부서인 법규처(法規處)를 설립하고, 1989년에 정책법규부(政策法規部)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스포츠분야에서의 법제의 지위를 높여주었을 뿐 만 아니라 스포츠법제와 스포츠이론 연구의 결합을 촉진하였다.

넷째, 건국 이후의 스포츠법규를 전면적으로 정리하였다. 건국 이후 240여 건의 스포츠법규를 폐지, 정리하여 “현행스포츠법규총집(現行體育法規匯編, 1949~1988년)”과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규총집(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規匯編, 1989~1992년)”을 출판하였다.

다섯째, 스포츠법학 이론의 연구를 강화하여 중국의 스포츠법규 체제의 구성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 스포츠의 입법 체제를 건립하고 법제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사람의 통치에서 법적 통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스포츠의 시장경제화, 산업화, 대중화에 법적인 보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체육 정책의 법제화는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입법의 수 보다 부문 입법의 수가 많다는 점과 스포츠 부서의 내부관계를 조율하는 법규가 많은 반면 사회 관련 법규와 스포츠업계 행정관리에 관한 법규가 부족하다. 또한 엘리트 체육 대비 생활체육 관련 법규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國家體育總局, 2009, 2013, 2015, 2017a).

(2) 체육관련 조직

① 국가체육총국(國家體育總局)

중국의 문화분야 정부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문화부(中華人民共和國文化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 국가체육총국(國家體育總局) 등이 있다. 중국의 각 부처는 국가국(國家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각 분야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國家體育總局, 2018b).

표 27. 중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조직 및 담당 영역

구 분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체육
문화부	○	○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국가여유국			○		
국가체육총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국가체육총국은 국무원 소속기관으로 장관급 위상을 가진 독립적인 직속기구로써, 217명의 공무원 및 10개 소속기관, 42개 산하기관을 가진 중국의 스포츠 분야를 주관하는 중앙행정부처이다. 주요업무는 스포츠발전 전략, 지역 스포츠 발전의

조화, 다원적 스포츠 서비스 시스템의 설립, 스포츠 관련 공공서비스와 스포츠체제의 개혁, 스포츠산업발전 계획 및 관련 정책법규의 제정, 대중스포츠, 청소년스포츠, 스포츠경기 발전의 관리, 스포츠 관련 대외협력과 교류, 스포츠 관련 금지약물의 관리 등이다. 1952년 설립된 중앙인민정부 체육운동위원회가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국체육위원회로 개칭하며 1998년 국무원의 직속기관으로 국가체육총국으로 개편하였다(國家體育總局, 20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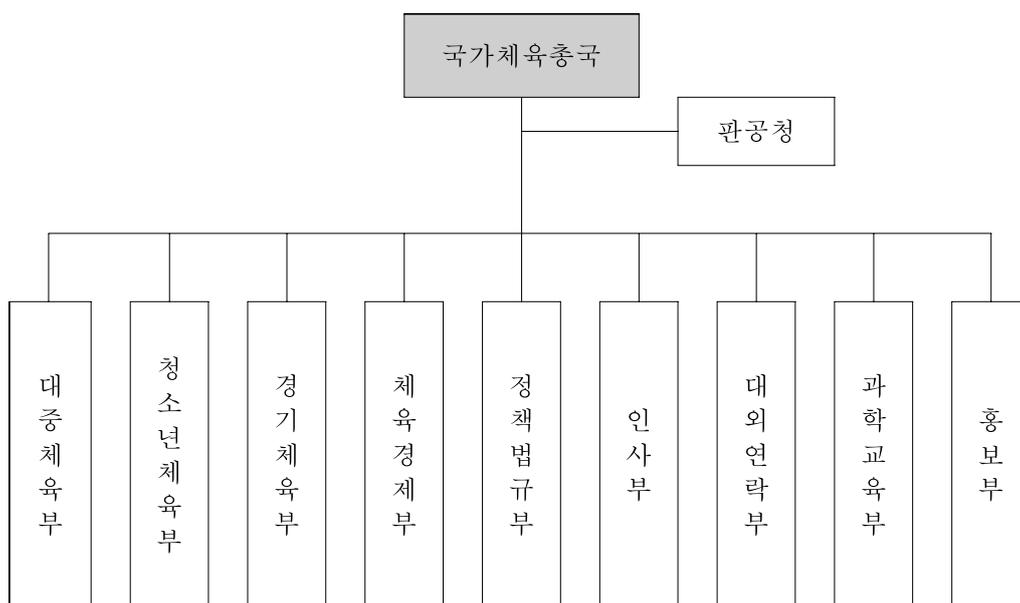


그림 5. 중국 국가체육총국 조직도

② 국가체육총국 체육과학연구소(國家體育總局體育科學研究所)

국가체육총국 체육과학연구소는 중국의 원로 혁명가이자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하고 중국의 현대체육 아버지라 불리우는 “賀龍” 원수(元帥)의 적극적, 전폭적 지지와 지원 하에 체육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국민체력 향상 및 전문체육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1958년 9월 18일 설립되었다. 중국 정부의 행정부처인 국가체육총국의 산하기관으로 약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0여명이 연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중국 스포츠의 근간인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 정책의 수립 및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 지원의 총괄 수행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중국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지원, 중국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수행, 스포츠과학 분야의 기초과제와 응용연구의 병행, 스포츠장비 및 용품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육학회와 연계된 업무 및 스포츠과학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규모면에 있어서 중국 최초, 최대의 사회공익성 스포츠과학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50여년간 중국체육의 과학화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체육영예장” 수상을 비롯한 많은 국가차원의 표창 및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國家體育總局, 2018b; 國家體育總局體育科學研究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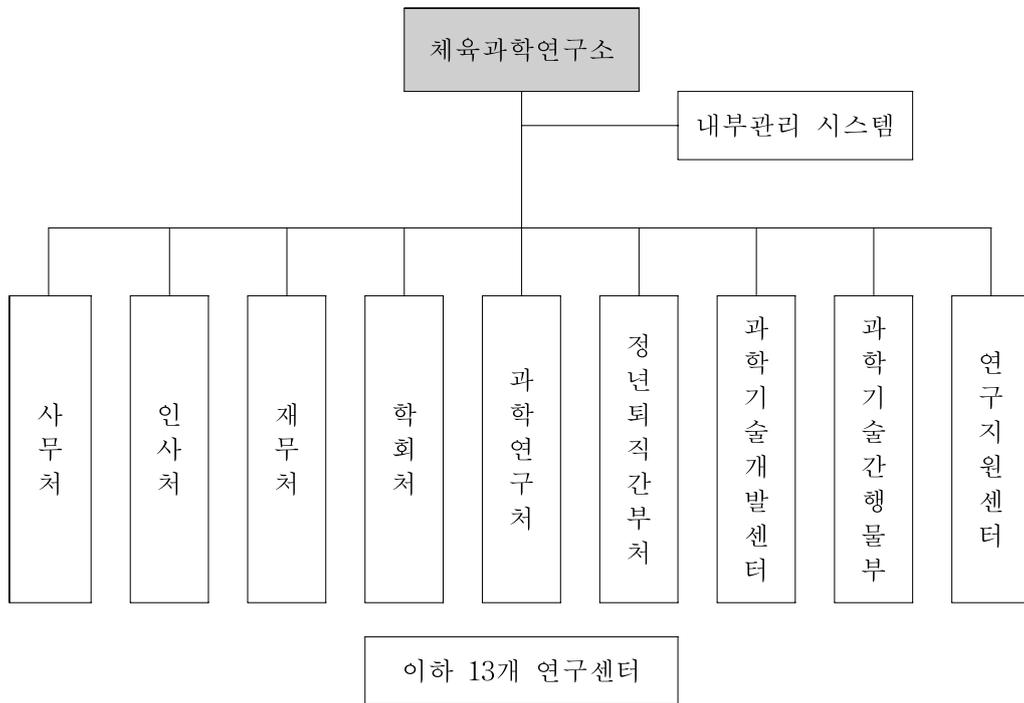


그림 6. 중국 체육과학연구소 조직도

(3) 체육관련 재정

중국의 국가체육총국과 직속기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규모 지방과 성 단위의 체육관련 기관들도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의 체육 재정은 1996년 기준 GDP의 0.41% 수준이었으며, 최근 10년간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30%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8).

국가체육총국의 2011년 기준 예산은 약 29억 위안이었으며, 2016년에는 약 32.4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체육총국의 체육과학연구소는 연간 약 1~2천만 위안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國家體育總局體育科學研究所, 2018).

체육재정은 정부예산, 복권 수익, 국가체육활동 및 행사, 직속기관의 매출, 마케팅(상업) 활동을 통한 소득, 기타 수입 등이 재정 조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2018; 國家體育總局, 2012, 2017b, 2018b).

7) 요약 및 논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중국 정부는 ‘발전체육운동, 증강인민체질(發展體育運動, 增強人民體質)’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체력강화를 주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체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오쩌둥 정부는 소련의 체육 정책을 모델로 하여 학교체육 및 아마추어 체육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거국체육(學國體育) 체제가 수립되면서부터 장기간 중국의 체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1950년대 중국의 스포츠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김동규, 이용수, 2003).

그러나 1960년부터 1963년까지 3년간의 자연재해로 중국 전체 스포츠사업은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며, 엘리트체육 전략을 “경기, 훈련 전선 단축 및 중점 종목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1966년부터 10년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을 겪으면서 중국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무정부상태로 변화됨으로써 엘리트 체육의 정책은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1971년 “핑퐁외교”가 있기 전까지 엘리트체육의 경기력 수준이 급 하락 하였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기존의 체육운동과 정책이 사라지고 대외적으로도 국제 경쟁에 뛰어들 생각조차 못할 만큼 고립화를 보이는 등 암흑기를 맞았다.

문화대혁명의 종결 이후 덩샤오핑 정부는 개혁개방 정책 시행과 함께 1977년과 1978년 각 지역의 체육총회, 체육운동위원회, 종목별 협회를 복원하였고, 1979년 9월 중화 인민공화국 30주년 대회의 지시는 개혁개방체제 하에 대내적인 체육 정책의 발전 및 대외 스포츠 교류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덩샤오핑 정부는 스포츠경기에 대한 영역별 관리체제 구축하고, 경기수준, 연령에 따른 분급경기제(分級競技制)의 실시와 경기의 사회화를 추진하였으며, 훈련체제 개편과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른 올림픽운동의 새로운 발전양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정책 방향을 통해 국제스포츠 무대에 재등장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가시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스포츠 대회 우승 확률이 98%, 세계 기록 갱신이 93%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거둔 성적으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장쩌민 정부는 덩샤오핑 정부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른 오운모식(奧運模式)의 정책을 이어받아 엘리트 체육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올림픽 대비 계획 강령(奧運爭光計劃綱要)을 반포하여 올림픽에서의 승리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엘리트 체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엘리트 강화 정책을 통해 중국의 모든 엘리트 체육 경기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리고 주요 국제스포츠 경기에 대비하여 경기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경기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엘리트 체육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엘리트 체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주도적인 지도역할, 사회기업들의 후원, 인민의 참여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엘리트 체육 관련 시스템이 체육의 발전에 비교적 적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정부는 2008년 올림픽을 원만히 개최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삼고, 장쩌민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승하는 한편 계속하여 엘리트 체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엘리트 체육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며 가능한 운동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스포츠 사업인 베이징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후진타오는 200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순위 3위 이상을 쟁취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목표달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도 규정하였다. 이처럼 후진타오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덩샤오핑과 장쩌민 정부시기에 진행된 개혁체제를 토대로 강력한 정책규범을 제정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후진타오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국 스포츠의 우수한 성과와 업적은 실현되었으나, 스포츠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 스포츠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스포츠는 끊임없는 추구이자, 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스포츠에서 중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수많은 금메달과 눈부신 성장에도 스포츠의 가장 기초 종목인 육상, 수영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기력이 매우 뒤쳐져 있고,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축구 또한 전체적인 면에서 뒤쳐

져 있기 때문에 국가와 인민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뒤쳐져 있는 종목들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정부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국제스포츠에서 중국이 스포츠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이전 정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 스포츠의 우수한 성과와 업적에 비해 유독 구기종목인 축구에서 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에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굴기(蹴球崛起) 즉, “축구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2015년부터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강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축구 부흥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 내용에는 중국 프로축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전국 2만 여개 초·중등 축구특성화학교 선정 및 축구 필수 과목 지정, 200여개 대학 축구팀 창단, 축구 경기장 7만개 설립, 1만 여개 축구 유치원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축구 발전을 위해 기업과 함께 해외 최상위급 축구 구단을 인수합병, 지분 매입, 월드컵 후원 등을 통해 중국의 국제스포츠 위상을 만방에 알리고 있으며, 체육계의 승부 조작, 비리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비리 척결 작업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체육정책의 법제화, 규범화를 이루었다. 마오쩌둥 체제 당시 스포츠에 대한 규정, 법규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의 법규는 대부분 지도자의 연설 혹은 정부의 행정적 조치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이후 민주와 법제라는 개혁개방 시기의 임무가 제기되면서 체육 분야의 법제, 규범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의 시행을 통해 체육 정책의 법제화, 규범화를 이룰 수 있었다.

중국의 체육관련 대표 조직은 국가체육총국이다. 국가체육총국은 국무원 소속 기관으로 장관급 위상을 가진 독립적인 직속기구이며, 중국의 체육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952년 설립된 중앙인민정부 체육운동위원회가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국체육위원회로 개칭하며 1998년 국무원의 직속기관으로 국가체육총국으로 개편하였다.

국가체육총국의 산하기관인 체육과학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중국 스포츠의 근간인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 정책의 수립 및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중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체육총국과 직속기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규모 지방과 성 단위의 체육관련 기관들도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체육재정은 정부예산, 복권 수익, 국가체육활동 및 행사, 직속기관의 매출, 마케팅 활동을 통한 소득, 기타 수입 등이 재정 조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1979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그 심화과정을 통하여 체육 분야를 비롯한 전 영역에서 큰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정책 방향과 특징, 그리고 결정과정과 변화과정에 따른 성과는 지도자의 사상에 주요하고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사상, 공산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정부의 기본노선과 제반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V.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의 방향과 결정, 그리고 변화와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유사점은 스포츠 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여왔다. 스포츠 강국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재정 지원, 법규화, 체제개편 등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체제에 따른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태도와 차이점은 분명하다. 먼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스포츠의 우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기는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다. 스포츠 강국과 성공에 대한 상징적인 가치는 해를 거듭할 수록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정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민주주의 사회의 스포츠는 이제 전통적인 아마추어, 엘리트주의에서 상업, 전문가주의로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반면, 중국은 스포츠의 우수성을 통해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우선시 하여 왔으며, 인간발달에 있어 정신적 문화와 신체적 문화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체육 정책은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인 미래성과 체육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체육 정책의 방향성은 정책화된 체육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거나 정책화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체육문제를 정책화하여 바람직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결국 체육 정책의 목표는 최선의 체육 정책 수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체육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며, 체육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체육 정책 수단은 체육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체육 정책 대상자가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경우에 그 직접적인 원인은 체육 정책 수단에 있기 때문에 체육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체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체육 정책의 목표는 체육 정책 과정상의 결정이나 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구체화되고 각각의 체육 정책 목표들 간에 상호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체제에 의해서 정책의 방향과 결정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중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그리스어인 ‘Demos(people)’와 ‘Kratos(rule)’의 합성어로서 국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누구이며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여부는 현재까지 견해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들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1974년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 이후 60개 이상의 국가가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면서 민주주의는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Pasquino, 1993).

한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의 방향과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체제로써 경쟁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형성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환 정부 시기의 정책은 국가(정부) 주도의 체육 정책으로써 국내외에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 수단으로 엘리트 체육을 이용하였으며, 엘리트 체육 정책을 통해 정권획득의 정당성 보장과 정권 안정화를 시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이었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 정책은 국수주의적 성향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더라도, 결국 국민의 합의를 위한 측면이 배제 되었다는 점에서 공과(功過)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슈페터(Schumpeter)는 민주주의를 위임 민주주의로 이해하면서 ‘민주주의란 경쟁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하여 국가권력 형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Schumpeter, 2010). 이에 반하여 베커(Becker)는 민주주의란 입헌적 민주주의를 통해 독재와 절대 권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하면서 국가권력 한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의 민주주의 개념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강조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Becker, 1941).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 이익 인간관을 사회 또는 윤리관의 기반으로 삼고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

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근대적 사회주의인 초기 사회주의는 1826년 최초로 로버트 오언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훨씬 이전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서부터 사회주의와 밀접한 사상이 생겨났었으며, 생시몽의 공동체주의, 토머스 모어의 기독교 평등사상이 생겨났다. 로버트 오언은 '사회주의'란 용어를 정립화 했고, 그 후 유럽 각지에서 푸리에(Fourier) 같은 여러 공동체, 집산주의를 지향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는 발전되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민주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뜻으로 치환되기도 한다(Newman, 2005).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의 방향과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주의 국가체제로써 엘리트 체육 정책의 방향은 지도자의 사상에 주요하고 있으며, 당·정부의 기본노선과 제반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마르크스-레닌 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사상 등, 공산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입법 활동이 공산당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법과 정책 제도는 사회주의 사상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책의 방향과 결정 사항의 권한은 국가 지도자에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면, 양 국가 모두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 체육 정책이 수립, 시행되었다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점차 엘리트 체육에서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 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엘리트 체육 정책에 대한 지속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은 역대 정권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의 경기력 향상 및 기록달성 등 개인적 성취에서부터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의 위상제고, 국민 통합 및 자긍심 고취,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도적 기능,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과 사회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꾸준히 발전·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경기력 향상과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국가대표선수 중심으로 육성해왔고 선수를 훈련시킬 훈련시설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1966년에 태릉선수촌 건립과 1972년 체육특기자제도

는 엘리트 체육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는 체육업무를 관장하던 중앙부처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였으나, 1982년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 ‘과’단위 체육업무가 ‘부’단위 업무로 승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는 ‘체육입국(體育立國)’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선수, 지도자, 시설에 집중투자 하였다. 그 결과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종합 4위(금 12개, 은 10개, 동 11개)의 성과를 거두어 체육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1990년대는 이전의 엘리트 체육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생활체육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은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였고, 엘리트 체육 여건확대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00년대는 기존 엘리트 체육 육성체제를 개혁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를 조성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육성기반 조성 및 엘리트 체육과 관련된 체육인 복지를 강화하여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켰다.

한편,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1949년 9월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정한 공동강령 제5장 제48조에 규정, ‘국민체육을 발전시키자’에 모체를 두고 있다. 그 뒤 1952년 “운동선수 선발 및 집중 양성 통지”를 발표하였고, 엘리트 체육에 집중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체육 행정기구의 설립, 운동부의 편성, 제도의 수립을 통해 엘리트 체육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엘리트 체육의 거국체제는 중국 체육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분쟁 속에서 10여년의 혼란과 정체를 거친 후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창한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침체를 마감하고 새롭고 활기찬 사회경제적 진전이 촉발되었다.

이후 중국 체육은 다시 정상궤도로 복귀하였고, IOC 재가입과 동시에 엘리트 체육은 세계 스포츠 무대에 다시금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1978년 국가 체육 실무 회의에서는 낙후된 엘리트 스포츠가 중국 체육의 약점으로 여겨지면서, “엘리트 체육을 정점으로의 빠른 복귀”가 특별히 강조되었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중국 사회는 이렇게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개혁개방을 핵심으로 국가의 부흥을 가장 빠른 시일에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현대화

과정 속에서 엘리트 체육은 내외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1980년대 스포츠 체제 개혁의 주요 사안으로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경기규정, 경기일정, 경기시설 등을 모두 국제표준에 맞추면서 수준에 따라 경기를 치르고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였고, 중국의 엘리트 체육 경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주요 국제대회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경기수준이 높은 운동선수나 팀을 육성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1995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체육운동위원회는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추진하는 ‘올림픽 영광을 위한 전략적 계획’ 반포하였으며, 체육에 대한 체제전환을 통하여 거국체제에서 시장화체제로의 전환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격을 거두었다. 또한 우세경기종목에 대한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적용하여 엘리트 체육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국 스포츠의 우수한 성과와 업적은 실현되었으나 스포츠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 스포츠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그간의 엘리트 정책을 통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체육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체육관련 법제는 살펴보면, 한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체육 분야의 법제화를 이루었다.

중국은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시행을 통해 체육 정책 법제화의 길로 들어선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법제와 체육관련 행정, 법제와 체육의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국과 달리 현재까지 엘리트 체육 대비 생활체육 관련 법규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과 중국의 체육관련 조직을 살펴보면, 한국은 정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의 세부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체육 분야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의 직속 기관인 국가체육총국에서 모든 체육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체육관련 조직 체계를

관리, 운영에 대한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부적인 조직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의 직속 기관인 국가체육총국 이하 산하의 세부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 체육관련 행정 업무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체육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기준 0.05%이며, 체육재정은 정부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륜, 복권, 토토 등의 수익금의 일부를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체육총국과 직속기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규모 지방과 성 단위의 체육관련 기관들도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체육재정은 정부예산, 복권 수익, 국가체육활동 및 행사, 직속기관의 매출, 마케팅 활동을 통한 소득, 기타 수입 등이 재정 조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지원과 예산 조달방법은 양 국가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비교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서술하였으나, 몇 가지의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문헌분석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전문가의 면담이나 인터뷰 등 질적인 접근방법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문헌분석 방법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기법을 동원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한국은 많은 정보를 연구보고서, 웹사이트 등과 같은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 많은 반면, 중국은 해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비공개 문서 등이 많아 공개가 가능한 일반적인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 범위나 추계를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엘리트 체육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스포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양 국가 간의 체육 정책의 방향, 결정, 변화, 성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체육 정책의 연속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체제에 적합한 스포츠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축, 시행하여 엘리트 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체육 정책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되는지, 그 성과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지난 50년간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정권 교체와 다양한 체육 정책 시행을 거듭하며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엘리트 체육 정책의 큰 변혁을 경험하였다. 거국체육 체제에서 시장경제화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제스포츠 무대의 중국 체육 입지를 강화하였으며, 정별권 엘리트 체육 정책의 최종 목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을 정립하여 체육 강국을 건설, 유지한다는 일관성과 지속성에는 변함이 없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엘리트 체육 정책은 국가체제나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결정과정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국가체제의 특성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관점이 다르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결정과정은 달리 설정될 수 있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엘리트 체육 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본 결과, 정권별 엘리트 체육 정책은 오랜 기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으며, 양 국가 모두 국제 스포츠 무대의 국위선양,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엘리트 체육 정책이 수립, 시행되었다는 유사성과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체육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엘리트 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엘리트 체육 분야의 다양한 영역(학교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발전시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 선진국을 위한 문화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스포츠 보급 및 참여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양 국가는 엘리트 체육 정책의 선진 시스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협력과 교류를 통해 엘리트 체육 정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엘리트 체육 정책만을 다루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분야를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심층적인 자료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체육 정책 및 학문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옥동(2012).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스포츠. **인문과학연구**, 38(1), 1-18.
- 김범식(1988). 스포츠를 통한 정치사회화가 국민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상구, 김범식(1984). 스포츠의 정치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3(1), 1003-1013.
- 김영란, 김홍태(2013).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7(4), 285-300.
- 김용현(2000). [통일론의 변천 5] 노태우 정권 시기의 통일론. **통일시론**, 1, 131-143.
- 김재우(2014). 남북통일축구대회의 성사배경과 협의과정. **체육사학회지**, 19(4), 1-14.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종철, 이종재(1997).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중희(2004).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 43-54.
- 김태형, 박인철(2004). 제 5 공화국 체육정책의 공과 (功過) 탐구-엘리트 스포츠의 육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1), 99-123.
- 김한나(2009). **문민·국민·참여정부 체육정책의 특성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일(2013). 창조경제와 체육교육의 미래.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2), 205-216.
- 김형익(2008). 군사정권과 문민정권의 한국 학교체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체육사학회지**, 13(1), 63-73.
- 김홍태(2003).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 협력의 평가 및 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1), 355-378.
- 김홍태, 김동선(2010).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의 평가 및 과

- 제. **한국체육과학회지**, 19(1), 3-19.
- 김홍태, 최경호(2013). 국민정부 체육정책의 실제와 평가.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 21-35.
- 남궁근(2008).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서울: 박영사.
-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 노화준(2012). **정책학원론: 복잡성과과학과의 융합학문적 시각**. 서울: 박영사.
- 류지성(2007).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 대한체육회(2018). **대한체육회 창립취지 및 연혁**. (<https://www.sports.or.kr/>)
- 문화체육관광부(2002). **2002 체육백서**.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04). **2003 체육백서**.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체육백서**.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체육백서**.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 정책백서**.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체육백서**.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16).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 체육행정 거버넌스 및 주요 이슈 관련 정책 비교**.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체육백서**.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30 스포츠 비전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2018b).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소개(연혁 및 조직도)**. (<http://www.mcst.go.kr/main.jsp>)

- 박종철(2017).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방향과 우선 과제. **통일연구원**, 1-6.
- 박주한. (2017). 박근혜정부 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2), 1-14.
- 박진경(2010).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 1-15.
- 박혜란(2005). 문민 통치 철학이 체육정책에 미친 영향. **한국체육철학회지**, 13(3), 115-125.
- 법제처(2018a).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2.9.17.] [법률 제1146호, 1962.9.17., 제정]. 세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제처(2018b).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3.1.1.] [법률 제3612호, 1982.12.31., 전부개정]. 세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제처(2018c). **법령 및 자치법규**. 세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서재하(2004). 김대중 정부의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1), 80-92.
- 서재하, 박창범(2011). 노무현 정부의 체육행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3), 819-833.
- 소영진(2009). 정책평가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지**, 19(3), 37-72.
- 손수범(2003).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엘리트스포츠의 변천. **한국체육학회지**, 42(4), 23-31.
- 신현규(2009). 제 5 공화국의 국민체육진흥법 전문개정 배경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151-169.
- 유정애, 권민정(2013). 우리나라 정부주도의 학교체육정책 성과 평가. **체육과학연구**, 24(2), 256-275.
- 유훈(1990). **정책집행과 일선관료제**. 서울: 대영문화사.
- 이범제(1999). **체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옥훈, 주동진, 김동규(2003). 제 3 공화국과 제 5 공화국의 국가주의 스포츠정

- 책 성향 비교.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 65-77.
- 이용식, 오연풍(2014).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체육진흥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2), 1-10.
- 이종수(1987). **한국에 있어서의 정책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2014). **교육정책론**. 서울: 학지사.
- 임식, 허진석(2009). 제 3 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 연구사의 비판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105-130.
- 임용태(1992). **체육청소년부 예산을 통한 체육정책의 분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일환(1998). 교육정책분석에서의 가치론에 관한 탐구. **교육정치학연구**, 5(1), 102-126.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2014).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창수(2018). 체육위기 속 해법 찾기: 한국체육 위기에 대한 정책 진단과 대응. **국민체육진흥세미나**, 53-60.
- 정희준(2017). 스포츠 적폐구조의 해체를 위한 탐색: “저항하는 자가 적폐다”. **스포츠과학**, 141, 24-31.
- 채경석(1997). **정책학원론**. 서울: 대왕출판사.
- 하용용(2005). 김대중 정부의 체육정책. **한국체육학회지**, 44(5), 55-65.
- 하태수(2009). 김대중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한국행정논집**, 21(2), 457-49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 크리홍보주식회사.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8).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소개**(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도 등). (<http://www.sports.re.kr/>)
- 행정안전부(201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index.jsp>)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18). **年度數據**. (<http://data.stats.gov.cn/>)

-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2018). 政務信息(財政數據)。(<http://yss.mof.gov.cn/>)
- 國家體育總局(1990). 中華人民共和國體育運動委員會(1949-1988)。現行體育法規彙編。
- 國家體育總局(1997). 關於加速培養跨世紀優秀中青年教練員的意見。
- 國家體育總局(1999). 關於國家體育總局直屬體育院校免試招收退役優秀運動員學習有關問題的通知。
- 國家體育總局(2001). 2001-2010年奧運爭光計劃綱要。
- 國家體育總局(2002). 關於進一步做好退役運動員就業安置工作的意見。
- 國家體育總局(2003). 2003 關於印發中華人民共和國第十屆運動會競賽規程總則。
- 國家體育總局(2009). (2007-2008) 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規彙編。
- 國家體育總局(2011a). (2009-2010) 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規彙編。
- 國家體育總局(2011b). 2011-2020年奧運爭光計劃綱要。
- 國家體育總局(2011c). 青少年體育工作的會議。
- 國家體育總局(2012). 國家體育總局2011年收支預算總表。
- 國家體育總局(2013). (2011-2012) 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規彙編。
- 國家體育總局(2015). (2013-2014) 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規彙編。
- 國家體育總局(2016). 青少年體育“十三五”規劃。
- 國家體育總局(2017a). (2015-2016) 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規彙編。
- 國家體育總局(2017b). 國家體育總局2016年收支預算總表。
- 國家體育總局(2018a). 中華人民共和國體育史上。(<http://www.sport.gov.cn/>)
- 國家體育總局(2018b). 國家體育總局體育信息中心承辦，國家體育總局簡介。(<http://www.sport.gov.cn/>)
- 國家體育總局體育科學研究所(2018). 國家體育總局體育科學研究所簡介。(<http://www.ciss.cn/>)
- 李秀梅. (2001). 網絡與現代體育教育。《體育文史》，1(1)，46-46.
- Anderson, J. E. (1984). Public-Making (3ed), New York: Holt
- Becker, C. L. (1941). Modern democracy, *Ethics*, 51(4), 470-473.
- Dye, T. R. (1981). *Understanding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Etzioni, A. (1968).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 (No. HM101. E89 1968.).
- Hoberman, J. M. (1984). *Sport and political ideology*. University of Texas Press.
- Lasswell, H. D. (1951). *The policy orientation*. Communication Researchers and Policy - Making.
- Lindblom, C. E. (1968). *The Policy-Making Process*. N.J: Prentice Hall.
- Loy, J. W., McPherson, B. D., & Kenyon, G. S. (1978). *Sport and social systems: A guide to the analysis, problems, and literature*.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 Lowi, T. J.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y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 Natan, A. (1958). *Sport and society*. London: Bowes & Bowes.
- Newman, M. E. (2005). Power laws, Pareto distributions and Zipf's law. *Contemporary physics*, 46(5), 323-351.
- Pasquino, P. (1993). Political theory of war and peace: Foucault and the history of modern political theory. *Economy and Society*, 22(1), 77-88.
- Vedung, E. (2017).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York: Routledge.
- Schumpeter, J. A. (201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Routledge.
- Zeigler, E. F. (1977).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hysical education: A view toward the future*, 36-61.